

석사학위논문

청소년들의 음악선호도 조사를 통해 본  
학교 음악교육의 가치와 역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장 홍 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고 현

2003 년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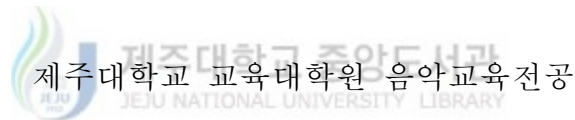
# 청소년들의 음악선호도 조사를 통해 본 학교 음악교육의 가치와 역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장 홍 용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 년 월 일



고 현

고 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3년 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 《국문초록》

### 청소년들의 음악선호도 조사를 통해 본 학교 음악교육의 가치와 역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 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 교육전공

지도교수 장 홍 용

청소년 문화에 있어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청소년들이 듣고 부르는 음악과 노래는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문화정책 특히 음악정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신중성만으로 어떤 종류의 음악을 청소년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어떤 음악이 좋고 싫은가는 물론 판단의 문제이다. 그러나 집단 선호의 경향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선호는 단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

집단 경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정말 좋은 음악인가 - 무엇이 선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야기시킨다.

교육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음악에 대한 흥미와 음악을 좋아하는 태도는 사실 음악과의 좋은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음악에 반응을 보이게 하는데는 반복적 접촉과 친밀감이 필요로 한다.

접하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관심으로 청소년들의 음악 취향이 결정된다면 청소년들은 좋은 음악에 대해 무감각한 단계에 이르러 그냥 수동적인 현상으로 음향기구나 전파매체를 통하여 음악의 질적인 성향은 배제된 채 좋고 나쁨의 선택이 없는 대중성의 음악적 환경에 노출되고 마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개선하고 음악적으로 교육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따져보고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고 가르쳐야 하는 곳이 바로 학교교육 현장인 것이다.

주위에서 보살펴주고 따스한 사랑을 베풀 때 정서적으로 안정된 청소년들이 음악 그 자체의 장점을 부드럽게 받아들이지만, 정서교육의 부재와 애정결핍 상황에서 듣는 음악은 이미 음악이 주는 가치를 상실하고

---

\* 본 논문은 200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마는 것이다.

예술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음악은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음악적 환경은 분명 선별적이어야 한다. 교사는 다양한 음악적 자극이 있는 환경을 제시하고 그 자유로운 환경에서 음악적 가치관을 교사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닌 청소년 스스로가 다양한 음악적 체험을 통해 좋고 나쁜 것을 구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과정의 내면화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

이에 본 논문은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음악선호도와 음악에 대한 생각과 환경을 설문으로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음악교육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



# 목 차

I. 서 론 . . . .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1
2. 연구의 내용 . . . . .	4
3. 연구의 방법 . . . . .	4
1) 연구의 대상 . . . . .	4
2) 연구의 자료 . . . . .	5
3) 자료의 처리 . . . . .	5
4. 연구의 제한점 . . . . .	6
II. 이론적 배경 . . . . .	7
1. 인간과 음악과의 관계 . . . . .	7
2. 청소년기의 특징과 음악과의 관계 . . . . .	10
3. 청소년기 학교 음악교육의 중요성 . . . . .	13
4. 학교 음악교육의 방향 . . . . .	16
III. 제주도내 청소년 음악선호도 조사 분석 . . . . .	20
1. 물리적 환경에 따른 음악취향 . . . . .	20
1) 음악을 듣는 시간 . . . . .	20
2) 음악을 듣는 기기 . . . . .	22
3) 음악에 대한 정보 . . . . .	26
4) 음악을 듣는 형태 . . . . .	28
2. 심리적 환경에 따른 음악취향 . . . . .	31
1) 가장 음악이 듣고 싶을 때 . . . . .	31
2)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때 부모님의 반응 . . . . .	34
3) 주로 같이 음악을 듣는 사람 . . . . .	37
4) 음악에 대한 흥미 . . . . .	39

3. 개인적 음악환경 . . . . .	42
1) 가장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는 음악의 분야 . . . . .	42
2) 일주일에 고전음악을 듣는 빈도 수 . . . . .	43
3) 연간 음악회 관람 빈도 . . . . .	45
4) 음악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이유 . . . . .	48
4. 개인적 음악 취향과 의식 . . . . .	51
1) 제주도내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 . . . . .	51
2)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 . . . . .	56
3)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음악 듣기 수준 . . . . .	59
4) 음악 듣기가 필요한 이유 . . . . .	63
5) 제주도내 청소년의 음악 호감도 . . . . .	64
 IV. 결론 및 제언 . . . . .	 66
 참고문헌 . . . . .	 73
 ABSTRACT . . . . .	 75
 부    록 . . . . .	 77



##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 학생의 분포 . . . . .	5
표 2. 설문지의 영역별 문항 구성 내용 . . . . .	6
표 3-1. 하루 평균 음악을 듣는 시간 . . . . .	20
표 3-2. 성별에 따른 음악을 듣는 시간 . . . . .	21
표 3-3.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을 듣는 시간 . . . . .	21
표 3-4. 지역별 음악을 듣는 시간 . . . . .	22
표 4-1. 청소년들의 음악을 듣는 기기 . . . . .	23
표 4-2. 학교별 음악을 듣는 기기 . . . . .	24
표 4-3. 인터넷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학생들의 지역별 비교 . . . . .	25
표 4-4. 지역별 음악을 듣는 기기 . . . . .	25
표 5-1. 음악에 대한 정보 . . . . .	26
표 5-2. 성별에 따른 음악에 대한 정보 . . . . .	27
표 5-3.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에 대한 정보 . . . . .	28
표 6-1. 음악을 듣는 형태 . . . . .	29
표 6-2. 성별에 따른 음악을 듣는 형태 . . . . .	30
표 6-3.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을 듣는 형태 . . . . .	31
표 7-1. 가장 음악이 듣고 싶을 때 . . . . .	32
표 7-2. 성별에 따른 음악이 듣고 싶을 때 . . . . .	33
표 7-3.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이 듣고 싶을 때 . . . . .	33
표 8-1.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때 부모님의 반응 . . . . .	34
표 8-2. 성별에 따른 부모님의 반응 . . . . .	35
표 8-3. 학교 구분에 따른 부모님의 반응 . . . . .	36
표 8-4. 음악을 같이 듣거나 대화하시는 부모님일 때 학생이 음악에 대한 흥미, 호감도 . . . . .	36
표 9-1. 주로 같이 음악을 듣는 사람 . . . . .	37
표 9-2. 성별에 따른 주로 같이 음악을 듣는 사람 . . . . .	38
표 9-3. 학교 구분에 따른 주로 같이 음악을 듣는 사람 . . . . .	39
표 10-1. 음악에 대한 흥미 . . . . .	40
표 10-2. 성별에 따른 음악에 대한 흥미 . . . . .	40
표 10-3. 성격에 따른 음악에 대한 흥미 . . . . .	41
표 11-1. 가장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는 음악의 분야 . . . . .	42
표 11-2. 성별에 따른 가장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는 음악의 분야 . . . . .	43
표 12-1. 일주일에 고전음악을 듣는 빈도 수 . . . . .	44

표 12-2. 성별에 따른 일주일에 고전음악을 듣는 빈도 수 . . . . .	44
표 12-3. 학교 구분에 따른 일주일에 고전음악을 듣는 빈도 수 . . . . .	45
표 13-1. 연간 음악회 관람 빈도 . . . . .	46
표 13-2. 전혀 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분포도 . . . . .	46
표 13-2. 성별에 따른 연간 음악회 관람 빈도 . . . . .	47
표 13-3. 학교 구분에 따른 연간 음악회 관람 빈도 . . . . .	47
표 13-4. 지역별 연간 음악회 관람 빈도 . . . . .	48
표 14-1. 음악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이유 . . . . .	49
표 14-2.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이유 . . . . .	50
표 14-3. 지역에 따른 음악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이유 . . . . .	51
표 15-1. 제주도내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 . . . . .	53
표 15-2. 성별에 따른 제주도내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 . . . . .	53
표 15-3. 선호하는 이유 . . . . .	55
표 15-4. 음악에 흥미가 매우 높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악 . . . . .	56
표 15-5. 자주 듣고 접하는 음악은 좋아하는 음악인가 . . . . .	56
표 16-1.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 . . . . .	57
표 16-2. 성별에 따른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 . . . . .	58
표 16-3.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 . . . . .	59
표 17-1.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음악 듣기 수준 . . . . .	60
표 17-2. 성별에 따른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음악 듣기 수준 . . . . .	61
표 17-3. 음악듣기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선호음악 분포와 전체 응답자의 선호음악 분포도 . . . . .	61
표 17-4. 학교 구분에 따른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음악 듣기 수준 . . . . .	62
표 17-5. 지역에 따른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음악 듣기 수준 . . . . .	62
표 18. 음악 듣기가 필요한 이유 . . . . .	63
표 19. 제주도내 청소년의 음악 장르별 호감도 . . . . .	6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의 학교교육은 입시라는 거대한 짐에 짓눌려 있다. 입시가 교육을 재단함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짚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지식만이 추구된다. 사실 수치화 할 수 있는 지식은 인간이 알 수 있는 많은 지식 가운데 사소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이 개발해야 할 더 넓은 지식의 분야는 외면되고, 기존에 알려진 지식들만 열심히 학습된다. 특히 새로운 지식으로 안내해야 할 교육이 그 길을 막고 있다. 창의성은 기피되고, 이미 있는 지식을 공식처럼 암기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를 위한 정신적, 시간적 부담은 거의 개인적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은 주위의 환경과 접촉되지 않고 단절되어 가고 있다. 환경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오는, 호기심에 의해 촉발되는 자연스러운 산지식의 습득보다는 그들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정리된 지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학생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임무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의 탈피는 많이 주장되지만, 그 주장되는 횟수만큼 외면 받는다.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도 이의 개선에 대해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살아 있는 지식이 가진 “짚 수 없는 성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 현상은 <공식적 교육제도>와 <비공식적 교육제도>에 의해 더욱 공고하게 되어 있다. 즉 공교육이라는 1차적 제도와 함께 사교육이라는 2차적 제도에 의해 -한층 더 강화되어- 짚 수 있는 지식을 절대화시킨다. 살아 있는 지식의 회복은 주위 환경과의 접촉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 중 예술과의 접촉은 박제된 지식으로부터 가장 쉽게 눈을 돌리게 할 수 있다. 민감한 시기의 학생들은 예술을 통해 주위 환경과 만나게 되고, 때로는 창조적으로 환경에 접근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남에 의해 정리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의해 접근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sup>1)</sup>

---

1) 홍정수, 음악과 생활, <http://www.um-ak.co.kr/gong/gulmoum/hong-umsang.htm>

음악, 혹은 예술이 왜 교육에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술 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지지자인 미국의 엘리엇 W.아이즈너(Elidit W.Eisner)는 예술은 학생들의 자기 보존, 즉 직업이라든가 먹고사는데 직접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혹은 교사의 캐리어를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예술은 인간을 경험하게 해주고 인간의 가치, 신념과 이미지 등을 가장 깊게 표현하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2)</sup>

오늘의 학교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창의적·비판적 사고력, 유연성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종합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이 요구된다. 또 나아가 예술적 심미안, 도덕적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교육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그 중 음악교과는 음악적 체험을 통하여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심미적 가능성을 최대한 확장하는 일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기에 학생 개개인의 무한한 음악적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어 전문 음악인이 아니더라도 음악을 즐기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학교 음악교육일 것이다.<sup>3)</sup>

음악이 사회 속에서 가지는 기능을 볼 때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음악을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는 ‘음악’ 자체보다는 ‘음악적 경험’이 더 기능적이라는 것이다. Portnoy는 음악의 가치는 음악적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영향력에 있는 것이라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음악이 사람에게 소용이 없거나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할 때는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해 버린다고 볼 수 있다.<sup>4)</sup>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은 사회의 경제적인 급성장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각종의 인쇄물과 대량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파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그들은 직접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있다.

현재의 청소년들은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지고 나갈 중요한 존재이므로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밝은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은 끊임없이 도와 주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치열한 경쟁의식과 인간성 상실로 인해, 청소년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서가 메말라가고 인간미의

---

2) 안재신(1992), “음악과 음악교육에서의 상상력”, 「음악교육연구」, 제11집, 한국음악교육학회, p.13.  
3) 김선혜(2000), “현장음악교육의 문제점”, 「음악과 민족」, 제20호, 민족음악학회, p.56-57.  
4) Rudolf E. Radocy · J. David Boyle, 「음악심리학(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 최병철·방금주 역(2001), 학지사, p.22.

상실을 겪는 이때 이들에게 인간미와 정서의 함양을 위한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 매개체는 음악, 영화, 연극, 독서 및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레저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 모두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정서순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청소년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라 본다.<sup>5)</sup>

청소년 문화에 있어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그 이유는 노래나 기악에 대한 태도 형성과 수용적 호의가 어린 시절에 이미 결정된다는 청소년의 성장적 측면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교육적 측면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듣고 부르는 음악과 노래는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 나타나는 가사의 내용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규범을 비교적 명백히 드러내며 그들이 듣는 음악의 구조와 그 구조를 받치고 있는 사상은 그들의 의식을 심층에서 결정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문화정책 특히 음악정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신중성이 어떤 종류의 음악을 청소년에게 강요할 수 있음을 정당화 할 수 없다.<sup>6)</sup>

무슨 음악이 '좋은'가는 물론 판단의 문제이다. 특정 음악이 다른 음악보다 우월하다는 식으로 개인이 판단하는 이유는 형식, 템포, 관현악적 색채 그리고 가사와 같은 음악적 특성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음악외적인 연상과 사회적 압력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선호는 단순한 향유, 고도의 사유 또는 무엇을 선호해야 한다는 관념에 기초할 수 있다. 그리고, 집단 선호의 경향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단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 집단 경향은 무엇이 정말 좋은 음악인가-무엇이 선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야기 시킨다.<sup>7)</sup>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허용해 주면서 보다 나은 그들의 음악적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게 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강요된 건전함은 일시적으로 그들을 침묵시킬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들의 음악적 세계를 구성해 줄 수 없다.<sup>8)</sup>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음악선호도를 설문으로 조사 분석하고 이를

---

5) 김혜경(2000), "TV방송음악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음악과 민족」, 제19호, 민족음악학회, p.244-245.

6) 서우석(1986), 「서우석 음악논집 물결 높던 날들의 연가」, 나남, p.173.

7) 최병철·방금주(2001), 전게서, p.364.

8) 서우석(1986), 전게서, p.174.

통하여 음악교육의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음악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음악과 그 공통점을 통해 음악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진정 가치 있는 음악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주도내 청소년 960명(제주시: 중학생 남·여 각 120명, 고등학생 남·여 각 120명, 서귀포시: 중학생 남·여 각 120명, 고등학생 남·여 각 1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지법으로 조사한다.
- 2) 조사 결과에 나타난 청소년이 선호하는 음악과 취향을 물리적·심리적 환경과 청소년기의 심리와 연관해 서로 상관성 관계가 보다 밀접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해 상호분석 연구한다.
- 3) 음악교육의 본질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청소년의 음악교육에 있어서 그 가치와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 3. 연구의 방법

###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로 다양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통계적인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조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제주도내 청소년 집단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중·고교에 총 9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여 800부의 설문지를 분석 대상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본집단의 중·고생과 남녀의 비율을 동일하게 아래의 표 1 과 같이 조정하였다.

표 1. 연구대상 학생의 분포

지역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남	여	남	여	
고등학생	100	100	100	100	400
중학생	100	100	100	100	400
계	200	200	200	200	800

## 2) 연구의 자료

제주도내 청소년들이 음악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음악교육의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하는 연구인만큼 설문지를 사용 하였다. 설문지의 영역 구성은 일반적인 사항과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개인적 환경, 개인적 음악취향과 음악에 대한 의식으로 구성하였는데 표 2 와 같다.

## 3) 자료의 처리

설문 문항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20명을 실시하여 문제되는 문항을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회수된 설문의 반응도는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표 2. 설문지의 영역별 문항 구성 내용

영역	설문내용	문항수
일반적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li> <li>· 학교 구분</li> <li>· 지역 구분</li> </ul>	3
물리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을 듣는 시간</li> <li>· 음악을 듣는 기기</li> <li>· 음악에 대한 정보</li> <li>· 음악을 듣는 형태</li> </ul>	4
심리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음악이 듣고 싶을 때</li> <li>·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때 부모님의 반응</li> <li>· 주로 같이 음악을 듣는 사람</li> <li>· 음악에 대한 흥미</li> </ul>	4
개인적 음악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는 음악의 분야</li> <li>· 일주일에 고전음악을 듣는 빈도 수</li> <li>· 연간 음악회 관람 빈도</li> <li>· 음악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이유</li> </ul>	4
개인적 음악취향과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내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li> <li>·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li> <li>·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음악 듣기 수준</li> <li>· 음악 듣기가 필요한 이유</li> <li>· 제주도내 청소년의 음악 호감도</li> </ul>	5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음악선호도 조사에 있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중·고등학교로 제한하여 제주도내 청소년을 대표했다.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본집단의 중·고생과 남녀의 비율을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인간과 음악과의 관계

음악의 세계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예로부터 인간 삶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어느 예술 영역보다 곧잘 사용되어 왔다. 인간이 존재한 이래 음악이 존재해왔기 때문에 여러 시대와 문화 그리고 인종을 망라하는 음악이라는 예술의 세계는 넓고 다양하고 풍요로울 수밖에 없다.<sup>9)</sup>

인간의 속성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사고(think)할 수 있는 속성이며, 둘째는 느낄(feel)수 있는 속성, 그리고 셋째는 나눌(share) 수 있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할 수 있는 속성은 인간의 존재 가치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지각, 기억, 분석, 비교, 연결, 개념화, 추론, 종합, 평가 등 여러 가지 사고 행위를 말한다. 물론, 이러한 사고하는 행위들은 사고해야 하는 것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사고 행위를 요하게 된다. 어떤 것은 상당히 분석적인 사고를 요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상상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창의적인 사고를 요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것은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한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음악은 이러한 다양한 지적인 사고 행위를 요하는 예술 영역이다. 특히, 음악의 본질 요소들의 특징과 이들이 상호 연계 속에서 창조해 내는 음악 미적 요소들을 감지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적 행위가 요구된다. 인간의 타고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음악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켜 인간으로 하여금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음악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여기에서 대두된다.

한편,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본질적 속성이다. 인간의 주관적인, 상당히 개인적인 차원의 영역이 느낀다는 것, 그 자체의 폭과 강도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고 또한 다양하다. 특히, 미적인 것에 대해 느낄 수

---

9) 황경숙(2000), “학교음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반성과 그에 대한 전망”, 『예술논총』, 제3집,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p.59-60.

있는 속성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선물이다. 느낌, 감정, 정서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속성들은 수없이 많은 분류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들을 표현하는 단어들도 다양하여 놀람, 기대, 흥분, 불안, 긴장, 슬픔, 노여움, 외로움, 자신감, 만족감, 승화된 느낌 등 인간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는 수없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정, 느낌을 내포하는 단어들은 정확하게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 어떤 감정의 상태 또는 느낌을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이를 의미하는 갖가지 형용사적 또는 명사적 단어나 어휘가 계속 나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뜻을 내포하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첨부된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 전달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깊은 내적인, 주관적인 차원에서의 느낌, 감정을 표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의 하나가 바로 음악 예술이다. 즉, 인간의 감정의 형태는 단순한 언어의 형태보다는 음악의 형태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음악은 인간의 정서적 감정을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실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악을 체험하지 않고 이를 교육하지 않는 것은 곧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미적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기초적 바탕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인간이 알고 느끼는 바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우리 인류 역사상 그것들이 서로 나누어져 왔다고 하겠다. 극히 객관적인 지식면에서는 물론, 극히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을 다루는 면에서도 그러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누어야 하는, 그래서 서로의 내적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겪어왔다. 나누는 과정은 그를 통해 재창조하는 과정을 낳았다. 예를 들어, 창조자가 새로운 예술 작품(음악)을 창조한 후 연주를 통해 연주자에 의해 재창조되는 과정이 있게 된다. 이 재창조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창조자의 정서, 감정이 그 작품을 재창조하는 연주자에 의해 나누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물론 연주자의 지적, 정서적 수준 및 경험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며, 이렇게 재창조되는 연주를 통해 이를 듣고 감상하는 애호가들은 다시 한 번 재창조의 나누는 과정을 창조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

즉, 연주자에 의해 연주된 작품은 그것을 접하고, 그것에 의미를 주고 감동을 받는 애호가들에 의해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탄생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나누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누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인간은 미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미적으로 승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10)</sup>



이처럼 음악의 존재성은 인간이 음을 통하여 미적 행위를 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즉, 인간의 내재적 본성인 사고하며 느끼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음악은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sup>11)</sup>

인간과 음악은 공존해 왔다. 음악은 그 시대의 문화, 사고의 틀, 가치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추구되어 왔으며, 생활 관습의 중요한 부분으로 역할을 하여 왔다. 음악은 항상 그 사회와 시대의 사상, 예술적 사고 등을 대표한다. 따라서, 각 시대나 각 나라의 문화는 그의 독특한 음악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음악은 인간 사회와 밀접한 유대 관계 속에서 변천하고 발전하며, 또한 지속하여 풍요한 음악 유산을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2)</sup>

이처럼 인간과 음악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어느 예술 영역보다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으로 행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는 보다 다양한 음악 장르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에 대한 인식차원에서 인간의 요구도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sup>13)</sup>

음악은 대체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에게 흥미를 유발시킨다. 그만큼 음악은 언어 이상으로 인간의 삶에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매우 보편적인 것이다. 때문에 음악적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인간의 정신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음악을 통해 언어보다 더 풍부하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인간의 삶 속에 내재된 보편적인 음악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똑같은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만은 결코 아니다. 예컨대 음악을 대하는 각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흥미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하여 흥미롭다고 느끼는 것은 그 대상을 이미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정신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sup>14)</sup>

---

10) 성경희, 음악교육이론, <http://www.amadeusclass.co.kr/education1/contents/contents2.html>.

11) 황경숙(2000), 전계서, p.60.

12) 석문주(1993), “바람직한 음악수업의 방향”, 「음악교육연구」, 제12호, 한국음악교육학회, p.119.

13) 황경숙(2000), 전계서, p.60.

14) 황희영, 재미와 재능, <http://www.um-ak.co.kr/column/jeamijeanjung.htm>.

## 2. 청소년기의 특징과 음악과의 관계

피아제(Jean Piaget)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인지발달 단계는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에 해당되며,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 청소년들의 인지 구조는 대체로 거의 완전한 성숙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사고의 논리적 조작이 자유로워져서 거의 완전한 성숙의 수준에 이르게 되고, 거의 모든 류의 문제를 논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피아제는 청소년들이 이 기간에 가설적 언어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고, 과학적 추리와 가설의 설정 및 검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는 그 본질상 가설 연역적 사고이며, 명제적 사고라는 것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현재의 상태 또는 구체적인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가상할 수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인지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Timothy Gerber는 청소년기를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자아를 확립하는 시기라고 규정하고,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성인들은 그들의 신체적·생리적·심리적 변화와 함께 그들 내면에 발생하는 자부심과 인지 및 인식 능력의 발달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심한 자기 중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합당한 이타심도 함께 소유하고 있고, 그들의 관심이 나비들처럼 이리저리 자주 이동하기는 해도 어떤 한 가지 일에 몇 시간 동안 몰두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때로 무례하기는 하지만, 사랑스럽고 협조적이다. 그래서 ‘흑에서 백으로’, ‘뜨거움에서 차가움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내면 상태, 즉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모습이 바로 청소년의 본래의 모습인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이 내적 변화의 상태는 어린이로부터 성인으로 변화하는 시기와 맞물림으로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발달 과업을 의식하게 한다. 변환이 연결 고리가 되는 청소년기에 그들은 자신과 부모 및 교사들의 갖가지 기대들 사이에서 무거운 부담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학생으로서 지적 및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야 하고, 미래에 대하여도 생각하게 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확립해야 하고 가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를 구축해야 하는 등 어렵고 부담스러운 과제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sup>15)</sup>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 표현에는 전달의 의미 이전에 자아의 확인이라는 의미가 있다. 남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표현하기에 앞서 자신이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나의 모습, 즉 자아를 확인한다. 일기를 쓰거나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이러한 자아확인 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음악은 인간의 이러한 필요를 보다 잘 충족시켜 준다. 음악은 기본적으로 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을 한다는 것은 곧 음악의 동적인 특징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불러일으킨다. 적극적 활동처럼 인간에게 자아감을 주는 것은 없다.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은 '나'를 경험하는 것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성을 느끼고 추구한다. 특히 오늘날 청소년은 세상 속에서 고독을 느낄 정도로 억압과 획일적 통제의 상황에 놓여져 예전보다 정신적으로 더 고립되어 있다. 그러기에 청소년들은 더욱 음악을 통해서 정신적 고립을 피하고, 보다 인간적인 모습을 찾고자 한다.<sup>16)</sup>

청소년기는 흔히 개개인이 뚜렷한 개체로 성장하고, 자아를 발견하고 강한 탐색 욕구, 왕성한 도전감을 지니는 시기로 특징지어지며, 이러한 특성들은 그들로 하여금 학교의 음악 학습과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을 통해 견실한 음악적 성취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청소년기의 그러한 일반적인 인간적 특성들이 음악이라는 특수한 예술 형태와 활동에 작용함으로써 그들은 또 다른 모습의 개체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sup>17)</sup>

그들이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갖추어 온 능력과 심성을 바탕으로 어떤 형태의 음악 체험을 하게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이 기간의 음악 체험의 질과 양상 범위가 그들의 성장과 음악적인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교사가 학생들의 신체적 및 지적, 감정적 발달 특성과 함께 음악적 성장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음악 체험을 체계 있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그 체험은 그들의 음악적 성장과 인간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이후의 음악적인 삶의 질과 양상에까지도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sup>18)</sup>

15) 이홍수(1993),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p.273-274.

16) 주대창, 음악교육론, <http://www.um-ak.co.kr/gong/nonmun/ju-giwon.htm>.

17) 이홍수(1993), 전제서, p.277.

18) 상계서, p.230-231.

청소년들은 개인별로 음악적 욕구와 필요를 지니며, 때로는 음악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들은 또한 음악으로부터 감성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지적인 충족감도 동시에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음향과 음악적 관련성, 음향과 추상성, 음악의 창조 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기간에 청소년들이 예술음악을 통하여 감성적, 지적으로 깊은 감동의 순간들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sup>19)</sup>

청소년들이 소리를 의미 있게 수용하고 또 스스로 의미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들은 자신과 음향세계 사이에 새로운 통로를 마련한 셈이 된다. 그것은 느낌과 감정의 소통의 방식이 음향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뜻한다. 학생들이 음향의 의미를 세심하게 느낄 수 있게 되면, 음악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일반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작곡가가 창출한 어떤 특정한 느낌이나 감정을 일으키기 시작하며, 그것은 그것의 이해와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한 체험이 연속되는 결과로 음악은 그들의 정서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음악을 통하여 타인의 느낌과 감정을 조정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이 곧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음악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만족의 경험은 청소년들의 음악 애호심과 음악 활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욕을 가지게 하는 바탕이 된다. 청소년들은 음악과의 만남을 통해 깊은 감동을 느끼고 그것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경험함으로써 음악이 자신의 삶과 사회 문화에서, 그리고 예술적인 측면과 효용적인 측면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들은 또한 음악과 관련된 즐거웠던 경험, 만족스러운 기억을 보유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과 태도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sup>20)</sup>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음악은 매우 협소한 종류에 집중되어 있다. 거기에다가 그 수용도 창조적이라기 보다는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그들이 수용하는 음악은 거의가 음악산업이 제공하는 것이다. 즉 그들은 상업성에 강하게 끌려 다니면서 매우 편협하게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음악을 통한 경험은 -경우에 따라 매우 강력한 것이지만- 매우 좁은 범주에 머물러 있다. 그 폭을 넓히는 것은 정신적 균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sup>21)</sup>

---

19) 이흥수(1990), 전계서, p.79.

20) 이흥수(1993), 전계서, p.307-309.

### 3. 청소년기의 학교 음악교육의 중요성

교육이란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개인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일이다. 학교 교육은 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체험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의 성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sup>22)</sup> 학교교육은 개개인의 귀중한 성장시기에 제공되는 것으로, 이는 자라나는 세대의 정서적·신체적·정신적인 면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그것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무언가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sup>23)</sup>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은 전문적인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지식의 교호과정을 통하여 풍요로운 가치관을 형성케 해주는 것이 핵심 목표라 할 것이다. 청소년기의 학교에서의 음악교육 역시 ‘전문음악가의 배출’이 목표로 되기보다는 ‘풍부한 감수성을 갖춘 인격형성’이 적합한 교육목적일 것이다. 이는 곧 ‘음악의 바람직한 체험’을 통하여 풍부한 정서와 조화로운 인격을 갖춘 참다운 인간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sup>24)</sup>

현대사회는 첨단 기술의 시대이다. 이 첨단 기술의 시대에는 음악도 테크놀러지와 매스미디어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아니 오히려 지배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힘은 대단하다. 유아나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은 학교 음악교육보다는 오히려 기술시대의 부산물, 이를테면 각종 미디어로부터 더 많은 음악적 영향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첨단 기술시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육은 무엇보다도 창의력과 독창성을 기르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예술은 가치를 낳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의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준다. 그것은 또한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며, 직관력을 길러 주기도 한다.<sup>25)</sup>

음악에 대한 기호(嗜好), 음악적 감정(musical emotion), 음악적 정서(musical

---

21) 홍정수, 음악과 생활, <http://www.um-ak.co.kr/gong/gulmoum/hong-umsang.htm>

22) 이흥수(1990), 전계서, p.69.

23) 황경숙(2000), 전계서, p.60.

24) 정정연, 이윤경(1990), “올바른 음악교육을 위하여”, 「민족음악」, 제1집, 민족음악연구회, p.137.

25) 안재신(1992), 전계서, p.14.

sentiment) 등을 음악적 심성이라 하는데 음악에 대한 기호는 음악을 좋아하는 정도, 혹은 음악의 종류와 관련하여 좋아하는 성향을 말하고, 음악적 감정은 음악을 체험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시적인 내적 감정 상태를 나타내며, 음악적 정서는 장기간의 음악 생활을 통해 형성된 지속적인 내면 상태를 말한다. 음악을 좋아하고 민감한 음악적 식별력과 예술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인간과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간이면 갖게 되는 모든 종류의 감정을 음악을 통해 폭 넓게 체험할 수 있으며 음악을 통해 감정적인 성숙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신의 내적 상태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면, 이를 인격적인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 개개인의 음악적 심성은 학교 안팎의 음악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음악 교사가 학생들의 음악적 심성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지만, 교사는 학교 음악 경험의 결과로 인하여 학생들이 바람직한 음악적 심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음악적 심성을 갖도록 하는 길은 교사가 음악을 성공적으로 가르치는 일이다.

성공적인 지도는 학생들의 음악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바람직한 음악적 심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을 말하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음악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의미 있는 음악 경험이란 학생이 모든 음악 활동에 주체로서 참여하고, 음악적인 느낌과 사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결정한 자신의 의도가 음악 행위 속에 포함되는 상태를 뜻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적 사고, 의도를 음악 행위의 주된 원천으로 이용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음악 행위와 기능은 심성과 깊게 관련된다.<sup>26)</sup>

학생들이 주로 듣는 음악들은 대개 호기심이 강한 친구들의 기호에 따라 선택된 것이거나 자신의 단순한 호기심에 따른 것이어서 그들의 음악적 필요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들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음악들이 있는지를 인식하기도 전에 일시적인 기호에 따라 선택된 오락적인 음악만을 듣게 될 경우 그들은 평생을 통해 그러한 음악만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교사가 인식해야 한다.<sup>27)</sup>

듣는 음악의 개선 없이는 부르는 음악의 개선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듣는 음악의 향상은 자연히 부르는 좋은 노래를 만들 것이다.<sup>28)</sup>

---

26) 이흥수(1990), 전계서, p.184-186.

27) 이흥수(1993), 전계서, p.284.

음악 애호심은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 또는 좋아하는 성향을 뜻하며 개인으로 하여금 음악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일상의 삶 속에서 음악과 깊이 관련을 맺고 살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은 음악 체험의 질, 범위 그리고 양상에 따라 결정되며 음악과 관련된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웠던 경험은 음악 애호심을 부추긴다.<sup>29)</sup>

청소년들의 음악적 심성, 음악의 정서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음악 애호심, 음악의 가치 내면화, 음악에 대한 태도 등은 그들이 가지는 학교 안팎의 갖가지 음악 경험의 질과 양상,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학교의 음악활동은 학생들의 음악 체험과 음악적 능력의 향상에 뿐만 아니라, 음악적 심성의 계발에도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음악적 심성은 특히 친구들과 사회의 음악문화 경향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 때문에, 교사는 학교의 음악 경험의 결과로 인하여 학생들이 바람직한 음악적 심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친구들이나 사회의 음악문화 경향은 의도적은 아니되 매우 강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음악적 심성에 관련된 영역이 교사의 조정권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경우에 학생들의 음악적 심성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계발되기 어려운 것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음악 경험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일시적인 호기심에 따른 대중 오락적 음악 경험이 그들의 음악 기호에 가장 강하게 작용하지만, 학교의 음악 활동과 학습 내용이 건설할 경우에 그러한 대중 오락적 경험은 그 힘을 잃는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의 음악활동과 학습에서 다양한 종류의 악곡 체험과 충실한 음악적 성취를 경험하지 못할 경우에 그들은 질 높은 예술 음악을 외면한 채 대중 오락적인 음악만 애호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성향은 그의 일생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어느 한 쪽에 편중된 기호를 갖지 않게 하는 동시에, 폭넓은 음악을 좋아하도록 이끌기 위한 교사의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음악 수업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음악 작품을 제공하고, 그들이

---

28) 서우석(1986), 전계서, p.184-185.

29) 배장명(2000),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과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p.11.



그러한 악곡과의 만남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음악 학습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를 자주 가지게 되면, 교사는 쉽사리 그들로 하여금 음악을 선택하여 감상하고 음악회에 자주 참석하도록 권할 수 있으며, 음악 연주 및 창작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다.<sup>30)</sup>

#### 4. 학교 음악교육의 방향

미래 지향적인 음악교육을 위해서는 첫째, 학생들에게 위대한 작곡가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고 현재의 유행음악을 일찍 소개해야 하며 둘째, 청소년에게 그들의 취향과 기호에 맞는 음악을 먼저 소개하고 거기서부터 다른 음악의 형태로 그들의 관심을 전환시켜야한다고 말한다.<sup>31)</sup>

교사는 학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학생을 위한 경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의 장이란 하나의 교육적 환경이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 환경은 자유로운 환경이어야 하고, 방관보다는 참여가 즐거워지는 그런 환경이어야 한다. 이 환경은 창의성이 그 어떤 것보다 존중되는 환경이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연습장이다.

예술은 살아 있어야 하고 이 살아 있는 예술이 교육제도라는 이름으로 짜여져 있는 하나의 테두리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 질식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이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속으로 사회나 개인이 필요로 하는 양식을 부어 넣는 일일 수 밖에 없다.<sup>32)</sup>

음악교육에 있어서 '동기부여'란 개념은 사실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음악교육에서 흥미와 관심의 동기는 사실상 음악수업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활동이다. 음악이 갖는 아름다움과 미적 체험을 스스로 적극적인 심리활동을 통해 경험한다는 것은 음악교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학습 과정에서 동

---

30) 이홍수(1993), 전계서, p.267-270.

31) 황경숙(2000), 전계서, p.68.

32) 이강숙(1989), 「음악의 방법」, 민음사, p.210-211.



기의 자발적인 생성은 교사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이고 수월하게 달성하게 하는 심리적 요인이며 학생들은 새로운 학습내용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의 심리적 과정을 통해 보다 고급한 지식에 도전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sup>33)</sup>

Rogers 와 Maslow 등 인간주의 심리학자들은 특히 동기에 있어서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Rogers 는 학생의 자아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학생이 인정을 받고 용납되는 환경 속에서만 학습이 가능하며, 자아 인식도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환경은 교사 일변도의 상황이 아니라 학생의 욕구, 흥미, 동기 등이 중심이 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교사가 학생의 상태와 느낌에 민감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한 환경은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인정하고 개인이 전폭적으로 자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Maslow 의 동기에 대한 개념은 그의 ‘인간의 욕구 위계’를 바탕으로 설명된다. 그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단계에 따라 충족되어야 할 욕구의 위계가 있다.

그 욕구의 위계를 따라 보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귀속 욕구, 자긍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등이며, 인간은 이 위계에서 낮은 차원의 욕구가 일단 채워지면 다음 단계의 욕구를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낮은 차원의 욕구들이 모두 충족된 사람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동기를 형성하게 된다고 Maslow 는 주장한다.

Rogers 와 Maslow 의 중요한 일치점은 선택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목표와 임무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의미 있으며, 학습 효과도 증진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들은 또한 교사가 학생들의 선택에 대해 유연성을 보일 때 학생들은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배우게 된다고 강조한다.<sup>34)</sup>

음악적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있어서 음악 교육의 의미는 그들의 음악적 생애가 결정되는 순간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의 한계성에서 해방되고 개개인의 창의성이 존중되는 학습 활동이 전제될 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즉, 학생의 음악적 가치관은 교사가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학습 활동을 통해 발견·비판 그리고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sup>35)</sup>

---

33) 송진범(2000), 「음악교육학」, 학문사, p.113-114.

34) 이홍수(1990), 전계서, p.88-89.

35) 배장명(2000), 전계서, p.13.

음악 교과 교사는 물론 음악 교과 교육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교육 현장에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수용하면 안 된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청소년 스스로가 어떤 것이 좋고 나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주어야 한다.<sup>36)</sup>

학생들이 정상적인 발달을 꾀할 수 있는 음악과 교육은 그들이 음악에 동화하고 진심으로 즐기며, 감성을 바탕으로 하여 창조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음악교육이 직접 기대하는 것은 창조성이 아니라 그 이전의 창조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야 창조성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성을 개발하기 위한 음악이나 음악교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 음악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창조적인 인간을 교육하고자 하는 음악 교사의 태도와 성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sup>37)</sup>

음악교육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흔히 ‘일반 음악교육’과 ‘전문 음악교육’이라는 말을 한다. 이러한 용어사용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비직업적인 교육이 ‘일반 음악교육’으로 여겨지고, 음악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적인 교육이 ‘전문 음악교육’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음악의 기능 면에서만 ‘전문’이라는 말을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음악을 효율적으로 잘 가르치는 행위나 체제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음악의 기능적 수준이 전문적이 아니라 가르치는 수준이 전문적일 수 있다.

음악의 가치는 음악을 보다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작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체험될 수 있다. 음악교육이라는 행위에 전문적인 관점과 작업이 있을 수 있으며 음악 교사가 수행하는 학교 음악 수업은 당연히 전문 음악교육이어야 한다.<sup>38)</sup>

학습자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우기 보다는 자기 자신이 그것을 찾아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학생 스스로의 발견에 의할 때 가장 뚜렷한 교육적 효과가 생긴다.

교사의 역할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한의 수단, 지식, 기술을 살려서 바른 길을 발견하는 실마리를 학생에게 주는 일이다. 경험이 발달적인 영향을 주게 되려면 그것이 일방적인 부과된 것이 아니고 이끄는 자와 이끌리는 자의 공동 작업이 되어야 한다. 교

---

36) 상계서, p.6.

37) 황경숙(2000), 전계서, p.69.

38) 주대창(2001), “음악듣기 교육의 포괄적 이해”, 「음악과 민족」, 제 22호, 민족음악학회, p.259.

사 자신의 창조적인 연구에 의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sup>39)</sup>

음악의 갈등은 가치관의 갈등일 수도 있고 취향의 갈등일 수도 있고, 사회관의 갈등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바라는 것의 상이점에서 나오는 갈등일 수도 있고 교육환경이 다른 데로부터 올 수도 있으며, 지식이나 상상력의 차이에서 올 수도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들을 현실 세계로 불러들일 수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건전한 정서를 위해서 의식 있고 건강한 음악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들의 자생성에 의한 음악문화가 형성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sup>40)</sup>



---

39) J. L. Mursell.(1948), 「音樂的 成長을 위한 敎育(Education for Musical Growth)」,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1986), 세광음악출판사, p.105-107.

40) 정정연, 이윤경(1990), 전개서, p.159.

### Ⅲ. 제주도내 청소년 음악선호도 조사 분석

#### 1. 물리적 환경에 따른 음악취향

##### 1) 음악을 듣는 시간

###### (1) 하루 평균 음악을 듣는 시간

제주도내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음악을 듣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라는 질문에서 1일 평균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59명(44.87%)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1-2시간 246명(30.75%), 2-3시간 109명(13.62%), 3시간 이상 86명(10.75%) 순으로 응답했다. 평균적인 시간을 질문한 것이어서 그 날의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1시간도 채 못되는 시간동안 음악을 듣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응답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359명이 답했고 3시간 이상 음악을 듣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800명중 86명으로 나타났다. 일상 생활 속에서 특히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의 활용면에서도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음악을 듣는 시간이 적음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에 대한 욕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3-1. 하루 평균 음악을 듣는 시간

하루 평균 음악을 듣는 시간	%	계(명)
1시간 미만	44.88	359
1-2시간	30.75	246
2-3시간	13.62	109
3시간 이상	10.75	86
계	100	800

###### (2) 성별에 따른 음악을 듣는 시간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1시간 미만의 시간 동안 음악을 듣는다고 응답을

한 학생인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남:48.25%,여:41.5%)하고 있으며 1-2시간, 2-3시간,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향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남학생은 단시간 동안, 그리고 여학생은 장시간 동안 음악과 접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성별에 따른 음악을 듣는 시간

하루 평균 음악을 듣는 시간	성별	
	남학생	여학생
1시간 미만	193 (48.25)	166 (41.5)
1-2시간	117 (29.25)	129 (32.25)
2-3시간	52 (13)	57 (14.25)
3시간 이상	38 (9.5)	48 (12)
계	400명(%)	400명(%)

(3)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을 듣는 시간

중·고등학생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의 비교에서는 1시간 미만의 시간동안 음악을 듣는다는 응답에서는 중학생이 높은 분포(중학생:51.1%, 고등학생:38.25%)를 나타내었으나 그 외의 시간의 응답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높은 응답을 하였다.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 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음악과 접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중학생들보다는 의식과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진 고등학생들이 음악을 접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 3-3.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을 듣는 시간

하루 평균 음악을 듣는 시간	학교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1시간 미만	206 (51.5)	153 (38.25)
1-2시간	110 (27.5)	136 (34)
2-3시간	46 (11.5)	63 (15.75)
3시간 이상	38 (9.5)	48 (12)
계	400명(%)	400명(%)

(4) 지역별 음악을 듣는 시간

지역별 응답 분포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에 응답을 한 학생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거의 같은 분포(제주시:44.25%, 서귀포시:45.5%)를 하고 있으나 1-2시간인 경우는 서귀포시가 보다 많은 분포(제주시:27.5%, 서귀포시:34%)를 그리고, 2-3시간(제주시:17%, 서귀포시:10.25%), 3시간 이상(제주시:11.25%,서귀포시:10.25%)의 응답에서는 제주시의 청소년들이 더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동안 음악을 듣는다는 응답은 서귀포시가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음악을 듣는다는 응답에서는 제주시의 학생들의 분포가 높았다. 제주시의 청소년들이 서귀포시의 학생들보다 음악과 접하는 시간이 많음을 나타냈다.

표 3-4. 지역별 음악을 듣는 시간

하루 평균 음악을 듣는 시간	지역별	
	제주시	서귀포시
1시간 미만	177 (44.25)	182 (45.5)
1-2시간	110 (27.5)	136 (34)
2-3시간	68 (17)	41 (10.25)
3시간 이상	45 (11.25)	41 (10.25)
계	400명(%)	400명(%)

2) 음악을 듣는 기기

(1) 음악을 듣는 기기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기기를 이용하여 듣는가 라는 질문에서 제주도내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다고 58.12%의 학생이 답했고, CD를 이용하여 듣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10.25%, 라디오를 이용한다는 학생은 9.25%, 휴대용 카세트를 이용한다는 학생은 8.75%, 기타의 의견으로 7.75%, 마지막으로 TV를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다는 학생은 가장 낮은 5.88%를 차지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디오나 휴대용 카세트, TV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다는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여가생활의 시대적 변화의 결과라고나 할까, 컴퓨터 보급률의 개가라고 해야할까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는 음악을 더 쉽게 접하고 있다. 인터넷은 단순한 뉴미디어를 넘어 새로운 청소년들의 생활 환경의 조건이 되고 있다. 기타의 의견으로 제시된 것은 모두 다를 통해서 듣는다는 학생들도 있었고, MP3, WINAMP<sup>41)</sup>를 통해서 듣는다는 의견, 음악시간을 통해서 듣는다는 의견, 직접 연주를 통해 듣는다는 의견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전과는 달리 현재의 청소년들 각자의 기호와 취향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음악적 환경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1. 청소년들의 음악을 듣는 기기

음악을 듣는 기기	%	계(명)
라디오	9.25	74
휴대용 카세트	8.75	70
CD	10.25	82
TV	5.88	47
인터넷	58.12	465
기타	7.75	62
계	100	800

(2) 학교별 음악을 듣는 기기

학교구분별 음악을 듣는 기기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부분에서 고등학생들의 기기 이용률이 높았으나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경우는 고등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높은 선호(중학생:263명/65.75%, 고등학생:202명/50.5%)를 보였다. 인터넷의 경우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의 학업 부담률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낮

41) 한국의 널소프트(Nullsoft)가 1997년 개발한 사운드 재생 프로그램. 컴퓨터 음악의 재생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속의 오디오연주기라 할 수 있다. MP3 이외에도 CD·WMA·MOD·WAV·Audiosoft 등 음악 파일 대부분을 지원한다. 일반 가정용 오디오 컴포넌트처럼 음악 연주에 관계된 플레이어와 이퀄라이저·플레이리스트·미니웹브라우저 등을 갖추고 있다. 이 박스들은 차곡차곡 서로 붙여서 쌓아놓을 수도 있고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도 있다. 이밖에도 디지털 형태의 화면 표시창과 강력한 셔플(Shuffle) 및 리플레이(Replay) 기능 등 다양한 옵션을 갖추고 있다.

다 보니 방과 후 컴퓨터를 활용할 기회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높아 그 이용률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의 경우 휴대용 카세트와 CD를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다는 학생들의 분포는 중·고등학교 각각 400 명의 연구 대상자 중 휴대용 카세트와 CD에 중학생들이 각각 31명이 응답하여 7.75%를 나타내었는데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휴대용 카세트가 39명(9.75%), CD가 51명(12.75%)이 응답하여 고등학생들은 라디오 보다 CD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휴대용 카세트나 CD와 라디오를 비교하면 라디오를 수동적인 청취형태라고 볼 수 있고, 휴대용 카세트나 CD를 능동적인 청취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중학교의 경우 라디오가 6.75%, 휴대용 카세트나 CD가 15.5%로 나타났고 고등학교의 경우 라디오가 11.75%, 휴대용 카세트나 CD가 22.5%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청취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등학생들의 보다 능동적인 형태의 음악 청취 취향을 나타낸다. 라디오의 경우 고전적인 방법이라 볼 수도 있는데 각 학교 구분별에서도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남학생:21명/5.25%, 여학생:53명/13.25%)이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고등학생들의 높은 분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자 고등학생들이 각각 19%와 12%로 응답하여 높게 나타났다. 앞에도 언급한 것과 같이 기타를 응답한 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 음악을 듣는다고 했다.

표 4-2. 학교별 음악을 듣는 기기

음악을 듣는 기기	학교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라디오	27 (6.75)	47 (11.75)
휴대용 카세트	31 (7.75)	39 (9.75)
CD	31 (7.75)	51 (12.75)
TV	27 (6.75)	20 (5)
인터넷	263 (65.75)	202 (50.5)
기타	21 (5.25)	41 (10.25)
계	400명(%)	400명(%)



(3) 지역별 음악을 듣는 기기

지역별로 음악을 듣는 기기를 살펴 볼 때 주로 라디오를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다는 경우, 서귀포시 높게(제주시:33명/8.25%, 서귀포시:10.25%) 나타났는데 특히 제주시 여고생들의 경우 13%의 이용률을 나타내었으나 서귀포시 지역 여고생들은 23%가 응답하여 제주시 여학생들 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휴대용 카세트와 CD의 이용률도 제주시가 10.5%와 11%로 나타났는데 반해, 서귀포시는 7%와 9.5%에 그쳤다. 이는 기기 이용도에서 볼 때 제주시의 청소년들의 기기 이용이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CD의 경우는 제주시 고등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의 분포가 각각 16%와 17%로 그리고, 서귀포시 중학교 여학생 또한 15%의 다소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지역별 분포를 볼 때 중학생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간 차이가 낮은데 반해 고등학생인 경우 다소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4-3. 인터넷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학생들의 지역별 비교

학교	고등학교(남)		고등학교(여)		중학교(남)		중학교(여)		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	42	59	48	53	74	73	59	57	465명

표 4-4. 지역별 음악을 듣는 기기

음악을 듣는 기기	지역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라디오	33 (8.25)	41 (10.25)
휴대용 카세트	42 (10.5)	28 (7)
CD	44 (11)	38 (9.5)
TV	24 (6)	23 (5.75)
인터넷	223 (55.75)	242 (60.5)
기타	34 (8.5)	28 (7)
계	400명(%)	400명(%)

### 3) 음악에 대한 정보

#### (1) 음악에 대한 정보

음악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에서 제주도내 청소년들은 800명의 연구 대상자 중 인터넷을 통해서 358명(44.75%),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274명(34.25%), 음악시간을 통해서 58명(7.25%), 친구를 통해서 56명(7%),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10명(1.25%), 그리고 기타의 의견으로 44명(5.5%)이 응답했다. 청소년들은 음악을 들을 때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는데 음악에 대한 정보 또한 인터넷을 통해 많이 얻고 있었다. 이제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음악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는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인터넷의 순기능면에서의 영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한 쪽으로 편향된 취향과 정보의 선택 및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인터넷 다음으로 TV나 라디오라고 응답했는데 청소년들의 관심이 대중매체에 있고 거기에서 청소년들의 사고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음악학원에서 알게 된다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부모님을 통해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얻는다는 응답, 그리고 악기를 배우게 되어서 알게 된다고 응답했으며, CD목록을 보고 음악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대중가수를 좋아하다 보니 그에 따른 정보를 알게 된다는 대답 등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다양한 관심과 많은 호기심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음악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TV와 같은 시각적인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흥미를 갖고 있으며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서적류에는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표 5-1. 음악에 대한 정보

음악에 대한 정보	%	계(명)
TV나 라디오	34.25	274
음악시간	7.25	58
신문이나 잡지	1.25	10
친구	7	56
인터넷	44.75	358
기타	5.5	44
계	100	800

(2) 성별에 따른 음악에 대한 정보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TV나 라디오를 통해 음악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항목은 여학생 155명이 응답해 38.75%를 나타냈으며 남학생은 상대적으로 적은 119 명이 응답해 29.75%를 나타내었다. 특히 서귀포시 지역의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46%가 여기에 응답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에는 남학생의 경우 195명이 응답하여 48.75%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163명이 응답하여 40.75%로 남학생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TV나 라디오와 인터넷의 경우 여학생들은 두 매체간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남학생들은 TV나 라디오를 통한 정보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에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5-2. 성별에 따른 음악에 대한 정보

음악에 대한 정보	성별	
	남학생	여학생
TV나 라디오	119 (29.75)	155 (38.75)
음악시간	31 (7.75)	27 (6.75)
신문이나 잡지	5 (1.25)	5 (1.25)
친구	26 (6.5)	30 (7.5)
인터넷	195 (48.75)	163 (40.75)
기타	24 (6)	20 (5)
계	400명(%)	400명(%)

(3)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에 대한 정보

학교 구분에 따라 음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에 대해 분류해 볼 때 전체적인 분포도에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의 정보를 얻고 있었다. TV나 라디오, 인터넷의 경우는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접하고 있다(중학생: 129명/32.25%, 고등학생:145명/36.25%)고 응답했으나 나머지 경우에서 거의 낮은 수치로 응답하고 있어 중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수용 형태 보다는 고등학생들은 한쪽에 편중된 정보의 수용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고등학생들의 성장 특징상 각기 보유하고 있는 음악행위 기능, 음악 경험의 범주와 흥미 경향, 음악에 대한 태도에 따라 정보를 선택적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악시간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400명 중 51명이 답해 12.75%로 나타난 반면 고등학생은 400명 중 7명이 응답해 1.75%에 그쳤다. 이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에 비해 음악 수업시간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학생들의 경우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많았다.

표 5-3.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에 대한 정보

음악에 대한 정보	학교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TV나 라디오	129 (32.25)	145 (36.25)
음악시간	51 (12.75)	7 (1.75)
신문이나 잡지	4 (1)	6 (1.5)
친구	28 (7)	28 (7)
인터넷	161 (40.25)	197 (49.25)
기타	27 (6.75)	17 (4.25)
계	400명(%)	400명(%)

#### 4) 음악을 듣는 형태

##### (1) 음악을 듣는 형태

주로 어떤 형태로 음악을 듣나 라는 질문에서 800명의 연구 대상자 중 기타 의견으로 296명(37%), 실내에서 집중해서 듣는다는 학생이 198명(24.75%), 공부하면서 듣는다 155명(19.38%), 음식물을 먹으면서 듣는다 109명(13.62%), 음악회에 가서 듣는다 3명(0.37%)의 순으로 응답했다. 음악회에 가서 듣는다는 응답은 적었지만 실내에서 집중해서 듣는다는 학생들도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선호하는 음악이 생기게 되므로 인해 청소년들은 직접 취향에 맞는 음악을 집중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의 의견으로 많은 응답을 하였는데 컴퓨터를 하면서 듣는다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휴식을 취하면서

듣는 학생들, 잠자면서 듣는다는 학생들, 운동을 하면서 듣는다는 학생들, 책을 읽으면서 듣는다는 학생들, 뭔가 할 일이 없을 때 듣는다는 학생들, 직접 연주를 하면서 듣는다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항상 틀어 놓고 생활하며 듣는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많았다. 컴퓨터를 하면서 듣는다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는 컴퓨터의 활용도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게임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게임만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정보의 검색 시에도 친구들과의 메일을 주고받을 때에도 청소년들은 컴퓨터를 켜고 동시에 음악을 배경처럼 듣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음악을 일상 생활처럼 부담 없는 생활 환경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 음악을 듣는 형태

음악을 듣는 형태	%	계(명)
공부하면서	19.38	155
실내에서 집중해서	24.75	198
차안에서	4.88	39
음식물을 먹으면서	13.62	109
음악회에 가서	0.37	3
기타	37	296
계	100	800

(2) 성별에 따른 음악을 듣는 형태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도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 실내에서 집중해서 듣는다는 응답은 남학생 400명중 101명(25.25%), 여학생 97명(24.25%)이 응답해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음악회에 가서 듣는다는 질문에서도 거의 응답하지 않아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높은 응답을 하였다. 남학생들에 비해 정적인 생활을 즐기는 여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남학생:63명/15.75%, 여학생:92명/23%)고 응답하는 학생들과 음식물을 먹으면서 음악을 즐긴다(남학생:38명/9.5%, 여학생:71명/17.75%)는 학생들이 많았다. 기타 항목에 많은 응답을 한 남학생들의 경우 컴퓨터 게임을 즐기면서 음악을 듣는다고 응답하

는 학생들이 많았고 여학생들은 항상 음악을 틀어 놓은 상태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체 응답 분포도에서 실내에서 집중해서 음악을 듣는다는 응답에서 남학생들이 미미한 차이지만 다소 높은 응답을 하고 있으나 남학생들의 경우 인터넷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고 응답하는 학생이 많은 것과 여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는 것과 항상 음악을 켜두고 생활한다는 응답으로 볼 때 여학생들이 장시간 음악을 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6-2. 성별에 따른 음악을 듣는 형태

음악을 듣는 형태	성별	
	남학생	여학생
공부하면서	63 (15.75)	92 (23)
실내에서 집중해서	101 (25.25)	97 (24.25)
차안에서	24 (6)	15 (3.75)
음식물을 먹으면서	38 (9.5)	71 (17.75)
음악회에 가서	2 (0.5)	1 (0.25)
기타	172 (43)	124 (31)
계	400명(%)	400명(%)

(3)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을 듣는 형태

학교 구분에 따른 분류에서는 모든 분포에서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기타의 의견은 중학생들이 높았다. 이것은 중학교 남학생들의 높은 응답으로 기인한 것인데 상대적으로 고등학생에 비해 학업 부담이 적은 중학교 남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는 응답 때문이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컴퓨터 게임을 더 많이 즐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부하면서 듣는다는 응답에서 중·고등학생 응답자 각각 400명 중 중학생 64명(16%), 고등학생 91명(22.75%)으로 나타나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는 고등학생들의 분포가 높았는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시 고등학교(남학생 29%, 여학생 20%), 서귀포시 고등학교(남학생 17%, 여학생 25%), 제주시 중학교(여학생 16%), 서귀포시 중학교(여학생 31%)에 반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중학교 남학생들은 각각 6%와 11%만이 응답했

다. 실내에서 집중해서 음악을 듣는다는 응답(중학생:86명/21.5%, 고등학생:112명/28%)에서도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응답이 낮았으며 그 중에서도 남학생의 응답이 낮은 분포를 보였다. 실내에서 집중해서 음악을 듣는다는 고등학생들의 높은 응답은 중학생들에 비해 좀 더 개성이 뚜렷해지고 다양한 음악 장르의 관심에 기인함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집중 감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3.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을 듣는 형태

음악을 듣는 형태	학교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면서	64 (16)	91 (22.75)
실내에서 집중해서	86 (21.5)	112 (28)
차안에서	23 (5.75)	16 (4)
음식물을 먹으면서	55 (13.75)	54 (13.5)
음악회에 가서	2 (0.5)	1 (0.25)
기타	170 (42.5)	126 (31.5)
계	400명(%)	400명(%)

## 2. 심리적 환경에 따른 음악취향

### 1) 가장 음악이 듣고 싶을 때

#### (1) 가장 음악이 듣고 싶을 때

가장 음악을 듣고 싶을 때가 언제인가 라는 질문에서 기분이 좋을 때 음악이 듣고 싶다는 응답을 한 학생이 800중 325명에 이르러 40.63%로 나타났고, 고민이 많을 때 12.88%, 슬플 때 10.75%, 독서나 공부할 때 8.75%, 운동할 때 2%, 기타의 경우 25%가 응답했다. 청소년들 중 많은 학생들이 기분이 좋을 때 가장 음악을 듣고 싶다고 느끼고 있으며 운동할 때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음악을 듣는 형태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타의 경우에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의견으로는 기쁠 때 슬플 때 모두를 응답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듣고 싶다는 학생, 스트레스가 많을 때, 할 일이 없을 때, 답답할 때, 새 음반이 나왔을 때, 좋은 음악 제목을 들었을 때, 일할 때, 너무 시끄럽거나 조용할 때도 음악을 듣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닌 항상 듣고 싶다고 응답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음악은 그 자체로서 청소년들에게 환경처럼 인식되어지고 있다. 음악은 청소년들에게 기분전환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기분을 더 만끽하고 싶을 때에도 음악을 느끼고 싶어하고 있으며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음악을 가까이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운동을 할 때, 책을 읽을 때, 컴퓨터를 할 때에도 음악과 가까이 하고 있었으며 그 영향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음악의 미적 가치의 질만을 논할 못지 않게 음악의 문화적 기능 또한 청소년들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 가장 음악이 듣고 싶을 때

가장 음악이 듣고 싶을 때	%	계(명)
기분이 좋을 때	40.63	325
슬플 때	10.75	86
고민이 많을 때	12.88	103
독서나 공부할 때	8.75	70
운동할 때	2	16
기타	25	200
계	100	800

(2) 성별에 따른 음악이 듣고 싶을 때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기분이 좋을 때와 슬플 때 음악이 듣고 싶다는 반응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보이는데 기분이 좋을 때 음악을 듣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 400명중 170명이 응답하여 42.5%로 나타났고, 같은 경우에서 여학생은 155명이 응답해 38.75%로 나타나 남학생은 여학생들보다 기분이 좋을 때 음악을 듣고 싶다고 응답했다. 슬플 때 음악이 듣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 400명중 21명이 응답해 5.25%로 나타난 것에 반해 여학생은 65명이 응답해 16.25%로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에 비해 좀 더 감성적인 면이 있는 여학생들이 슬플 때에도 음악을 듣고 싶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2. 성별에 따른 음악이 듣고 싶을 때

가장 음악이 듣고 싶을 때	성별	
	남학생	여학생
기분이 좋을 때	170 (42.5)	155 (38.75)
슬플 때	21 (5.25)	65 (16.25)
고민이 많을 때	50 (12.5)	53 (13.25)
독서나 공부할 때	38 (9.5)	32 (8)
운동할 때	12 (3)	4 (1)
기타	109 (27.25)	91 (22.75)
계	400명(%)	400명(%)

(3)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이 듣고 싶을 때

학교 구분에 따른 분류에서 중학생들은 기분이 좋을 때 음악이 듣고 싶다고 400명 중 175명이 응답해 고등학생의 같은 경우 150명이 응답해 37.5%의 분포로 나타난 것에 비해 6% 이상 높게 나타났다. 슬플 때 음악이 듣고 싶다는 경우는 400명의 고등학생 중 55 명이 응답해 13.75%를 나타낸 반면, 중학생은 31 명이 응답해 7.75%로 나타났다. 나머지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비교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표 7-3.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이 듣고 싶을 때

가장 음악이 듣고 싶을 때	학교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기분이 좋을 때	175 (43.75)	150 (37.5)
슬플 때	31 (7.75)	55 (13.75)
고민이 많을 때	46 (11.5)	57 (14.25)
독서나 공부할 때	35 (8.75)	35 (8.75)
운동할 때	10 (2.5)	6 (1.5)
기타	103 (25.75)	97 (24.25)
계	400명(%)	400명(%)

## 2)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때 부모님의 반응

### (1)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때 부모님의 반응

내가 꼭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때 부모님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서 무관심하신다 라고 답한 학생이 800명의 학생 중 482명이 응답해 60.25%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부하라고 꾸중하신다 라고 한 학생은 106명이 응답해 13.25%를 나타냈으며 같이 듣는다 라는 항목에는 111명이 응답해 5.87%를 나타냈다. 기타 의견으로는 54명이 응답해 6.75%를 나타냈다. 기타 의견에 제시된 의견은 관심과 무관심의 반응이 동시에 보이는 부모님과 시끄럽다고 꾸중하시는 부모님, 특정 음악을 권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셔서 반응을 모르겠다는 학생들의 응답 등 다양했다. 같이 듣는다와 같이 듣고 대화하신다는 부모님의 반응을 긍정적인 부모님의 반응이라고 보면 이 반응은 19.75%를 나타내고 있다. 부모님의 반응을 무관심한 반응과 적극적인 반응으로 나눌 때 적극적인 반응에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포함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적극적인 반응(같이 듣는다, 같이 듣고 대화하신다, 공부하라고 꾸중하신다) 33%에 지나지 않아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부모님의 절반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자녀수의 감소와 부모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가족 간의 대화는 부족해지고 서로 의사소통 할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무관심이 심해지고 있다. 좀 더 적극적인 부모님의 관심이 있어야 하겠다.

표 8-1.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때 부모님의 반응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때 부모님의 반응	%	계(명)
같이 듣는다	13.88	111
공부하라고 꾸중하신다	13.25	106
무관심하신다	60.25	482
같이 듣고 대화하신다	5.87	47
기타	6.75	54
계	100	800

(2) 성별에 따른 부모님의 반응

부모님의 반응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면 같이 듣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녀 각각 400명의 학생중 남학생 52명, 여학생 59명이 응답해 각각 13%와 14.75%를 나타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공부하라고 꾸중하신다는 문항은 남학생 41명, 여학생 65명이 응답해 각각 10.25%, 16.25%를 나타냈으며 무관심하다는 항목에 서는 남학생이 257명, 여학생 225명이 응답해 각각 64.25%와 56.25%를 나타냈다. 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보다 부모님의 무관심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이 듣고 대화하신다는 문항에서는 남학생이 22명, 여학생 25명이 응답해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표 8-2. 성별에 따른 부모님의 반응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때 부모님의 반응	성별	
	남학생	여학생
같이 듣는다	52 (13)	59 (14.75)
공부하라고 꾸중하신다	41 (10.25)	65 (16.25)
무관심하신다	257 (64.25)	225 (56.25)
같이 듣고 대화하신다	22 (5.5)	25 (6.25)
기타	28 (7)	26 (6.5)
계	400명(%)	400명(%)

(3) 학교 구분에 따른 부모님의 반응

학교 구분별 부모님의 반응은 공부하라고 꾸중하신다는 응답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같은 분포를 보였으나 나머지 항목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같이 듣는다는 항목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400명의 학생들 중 중학생 62명 (15.5%), 고등학생 49명(12.25%)이 응답했고 같이 듣고 대화하신다는 항목에서는 중학생 30명(7.5%), 고등학생 17명(4.25%)이 응답해 중학생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부모님의 좀 더 많은 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하겠다.

표 8-3. 학교 구분에 따른 부모님의 반응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때 부모님의 반응	학교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듣는다	62 (15.5)	49 (12.25)
공부하라고 꾸중하신다	53 (13.25)	53 (13.25)
무관심하신다	226 (56.5)	256 (64)
같이 듣고 대화하신다	30 (7.5)	17 (4.25)
기타	29 (7.25)	25 (6.25)
계	400명(%)	400명(%)

(4) 부모님의 반응과 음악에 대한 흥미

부모님의 적극적인 반응과 음악에 대한 흥미와의 관계를 보면 내가 꼭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때 부모님이 같이 듣는다, 같이 듣고 대화하신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음악의 흥미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중 95% 이상의 학생들이 음악에 긍정적인 흥미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4. 음악을 같이 듣거나 대화하시는 부모님일 때  
학생이 음악에 대한 흥미, 호감도

	매우 많다	많다	보통이다	없는 편이다	전혀 없다	
같이 듣는다	29 (26.13%)	34 (30.63%)	44 (39.64%)	4 (3.6%)	0 (0%)	111명 (100%)
같이 듣고 대화 하신다	13 (27.66%)	19 (40.43%)	13 (27.66%)	2 (4.26%)	0 (0%)	47명 (100%)
전체 응답자	138 (17.25%)	239 (29.88%)	349 (43.63%)	54 (6.75%)	20 (2.5%)	800명 (100%)

### 3) 주로 같이 음악을 듣는 사람

#### (1) 주로 같이 음악을 듣는 사람

음악듣기를 주로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혼자서 라고 응답한 학생이 800명의 학생 중 438명이 응답해 54.75%를 나타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형제 자매와 듣는다는 265명이 응답해 33.13%, 친구와 듣는다는 77 명이 응답해 9.62%, 부모와 같이 듣는다는 15명이 응답해 1.88%, 이성과 같이 듣는다는 5명이 응답해 0.62%를 나타냈다. 혼자서 듣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절반이 넘는 54.57%를 나타냈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기기 사용률과 음악을 듣는 형태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넷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학생과 게임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 학생이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시끄러운 것 못지 않게 전혀 소리가 없는 상태를 견디기란 쉽지 않다. 정적을 기피하거나 깨뜨리고자 하는 인간의 성향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청소년기의 특징상 청소년들은 자신의 사적인 자기영역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음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악을 듣는 것은 청소년들이 혼자 있을 때 기분전환이고, 외롭고 슬프거나 어떤 상황을 순간적으로 잊고 싶거나 즐기고 싶을 때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일 때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이 생김을 알 수 있다. 미디어 기술의 발전 방향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도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특성과 맞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은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의 조성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혼자서도 음악을 들음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

표 9-1. 주로 같이 음악을 듣는 사람

음악을 같이 듣는 사람	%	계(명)
부모	1.88	15
형제-자매	33.13	265
친구	9.62	77
이성	0.62	5
혼자서	54.75	438
계	100	800

(2) 성별에 따른 주로 같이 음악을 듣는 사람

성별에 따른 음악을 같이 듣는 사람 분류에서 부모와 같이 듣는다는 문항에서 남녀 각각 400명의 학생 중 남학생 10명(2.5%), 여학생 5명(1.25%)으로 나타나 비슷한 분포지만 남학생들이 좀더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형제자매와 같이 듣는다는 문항에서는 남학생 108명(27%)과 여학생 157명(39.25%)이 응답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족과의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친구와 듣는다는 응답에서는 남학생 45명(11.25%), 여학생 32명(8%)이 응답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분포가 높았다. 이는 친구 관계의 친밀도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혼자서 듣는다는 문항에서는 남학생 235명(58.75%), 여학생 203명(50.75%)이 응답해 남학생들이 혼자서 듣는다는 문항에서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9-2. 성별에 따른 주로 같이 음악을 듣는 사람

음악을 같이 듣는 사람	성별	
	남학생	여학생
부모	10 (2.5)	5 (1.25)
형제-자매	108 (27)	157 (39.25)
친구	45 (11.25)	32 (8)
이성	2 (0.5)	3 (0.75)
혼자서	235 (58.75)	203 (50.75)
계	400명(%)	400명(%)

(3) 학교 구분에 따른 주로 같이 음악을 듣는 사람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을 같이 듣는 사람의 분류는 차이가 많이 보이는데 이성과 같이 듣는다는 중·고등학교 각각 400명의 학생 중 중학생 3명(0.75%), 고등학생 2명(0.57%)으로 나타나 거의 응답자가 없었으나, 형제자매와 같이 듣는다는 문항에서는 중학생 147명(36.75%), 고등학생 118명(29.5%)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에 비해 아직은 중학생들이 형제 자매의 의존도가 높아 보인다. 친구와 듣는다는 응답은 중학생 21명(5.25%), 고등학생 56명(14%)이 응답해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친구

와의 친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의 분포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로 혼자 듣는다는 문항에서 중학생 215명(53.75%), 고등학생 223명(55.75%)이 응답해 고등학생의 응답이 다소 높았으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표 9-3. 학교 구분에 따른 주로 같이 음악을 듣는 사람

음악을 같이 듣는 사람	학교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	14 (3.5)	1 (0.25)
형제-자매	147 (36.75)	118 (29.5)
친구	21 (5.25)	56 (14)
이성	3 (0.75)	2 (0.5)
혼자서	215 (53.75)	223 (55.75)
계	400명(%)	400명(%)

#### 4) 음악에 대한 흥미

##### (1) 음악에 대한 흥미

음악의 대한 흥미는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연구 대상자 800명 중 349명(43.63%)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많다 239명(29.88%), 매우 많다 138명(17.25%), 없는 편이다 54명(6.75%), 전혀 없다 20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에 대한 흥미는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알아보는 것인데 이는 음악 교과에 대한 학습 흥미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응답자 중 90% 정도가 보통 이상으로 음악에 긍정적으로 흥미를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음악에 흥미가 많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렇듯 음악에 흥미를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으나 앞에서 연구한 음악을 듣는 시간의 양과 비교하면 음악의 흥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흥미의 욕구만큼 음악을 듣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10-1. 음악에 대한 흥미

음악에 대한 흥미	%	계(명)
매우 많다	17.25	138
많다	29.88	239
보통이다	43.63	349
없는편이다	6.75	54
전혀 없다	2.5	20
계	100.01	800

(2) 성별에 따른 음악에 대한 흥미

성별에 따른 음악에 대한 흥미에서 연구 대상자 남녀 각각 400명 중 남학생 57명(14.25%), 여학생 81명(20.25%)이 매우 많다 라고 응답하였고, 남학생 117명(29.25%), 여학생 122명(30.5%)이 많다 라고 응답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흥미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많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지역별 학교 구분별 통틀어 제주시 고등학교 남학생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악에 대한 흥미가 없는 편이다 라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 35명(8.75%), 여학생 19명(4.75%)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악에 대한 흥미가 없는 학생이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10-2. 성별에 따른 음악에 대한 흥미

음악에 대한 흥미	성별	
	남학생	여학생
매우 많다	57 (14.25)	81 (20.25)
많다	117 (29.25)	122 (30.5)
보통이다	179 (44.75)	170 (42.5)
없는편이다	35 (8.75)	19 (4.75)
전혀 없다	12 (3)	8 (2)
계	400명(%)	400명(%)



(3) 성격에 따른 음악에 대한 흥미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서 연구대상자 800명 중 359명 (44.83%)이 자신의 성격을 활동적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내성적 157명(19.63%), 소극적 134명(16.75%), 차분함 84명(10.5%), 적극적 66명(8.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격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평가함으로써 자신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이라고 53.08%의 학생이 응답하고 있으며 내성적이고 차분하다는 응답 30.13%의 응답과 소극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 16.75%로 크게 나눌 수 있겠다. 성격별 구분에 따른 음악의 흥미도 또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음악의 흥미가 보통이다, 많다, 매우 많다, 없는 편이다, 전혀 없다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자신의 성격이 소극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분포는 보통이다 47.76%, 많다 28.36%, 없는 편이다 12.67%, 매우 많다 8.21%, 전혀 없다 2.99%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음악의 흥미에 가장 호의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흥미가 많다고와 매우 많다고의 응답의 경우, 적극적인 성격의 학생들이 60.6%를 나타내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차분한 성격의 학생들 51.19%가 응답해 음악의 흥미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을 활동적이라 응답한 학생들도 49.31%, 내성적이라 응답한 학생 43.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성격과 차분한 성격의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흥미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0-3. 성격에 따른 음악에 대한 흥미

	매우 많다	많다	보통이다	없는 편이다	전혀 없다	800명 (100%)
내성적	24 (15.29%)	44 (28.03%)	71 (45.22%)	15 (9.55%)	3 (1.91%)	157명 (19.63%)
차분함	14 (16.67%)	29 (34.52%)	34 (40.48%)	5 (5.95%)	2 (2.38%)	84명 (10.5%)
소극적	11 (8.21%)	38 (28.36%)	64 (47.76%)	17 (12.67%)	4 (2.99%)	134명 (16.75%)
적극적	18 (27.27%)	22 (33.33%)	20 (30.3%)	4 (6.06%)	2 (3.03%)	66명 (8.25%)
활동적	71 (19.78%)	106 (29.53%)	160 (44.57%)	13 (3.62%)	9 (2.51%)	359명 (44.83%)
800명 (100%)	138 (17.25%)	239 (29.88%)	349 (43.63%)	54 (6.75%)	20 (2.5%)	800명 (100%)

### 3. 개인적 음악 환경

#### 1) 가장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는 음악의 분야

##### (1) 가장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는 음악의 분야

가장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는 음악의 분야는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에 800명의 연구 대상자 중 562명(70.25%)이 듣기(감상) 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노래(가창)에 152명(19%), 악기연주(기악)에 58명(7.25%), 가락 짓기(작곡)에 9명(1.12%)이 응답했다. 그리고 기타의 의견으로 19명(2.38%)이 응답해 모두 부담스럽다는 의견과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청소년들은 듣기를 가장 부담 없는 음악의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부르기 즉 가창 영역을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뒤에 연구 될 가장 선호하는 음악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가창 영역에 속하고 있음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음악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악기연주와 가락짓기의 경우 가장 부담 없는 음악의 영역을 질문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의 낮은 응답의 분포는 음악의 분야 중 연주와 가락짓기가 직접적인 음악 체험의 효과적인 방법임을 생각할 때 청소년들에게 이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이 요구된다.

표 11-1. 가장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는 음악의 분야

가장 부담없는 음악의 분야	%	계(명)
노래(가창)	19	152
악기연주(기악)	7.25	58
가락짓기(작곡)	1.12	9
듣기(감상)	70.25	562
기타	2.38	19
계	100	800

##### (2) 성별에 따른 가장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는 음악의 분야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데 악기 연주(기악)의 경우 각각 400명의 학생 중 남학생 23명(5.75%), 여학생 35명(8.75%)이 응답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음악적 체험이 좀 더 다양하게 보인다. 그리고 가창의 경우 고등학교 남학생들(제주시 고: 30%, 서귀포시 고: 20%)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11-2. 성별에 따른 가장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는 음악의 분야

가장 부담없는 음악의 분야	성별	
	남학생	여학생
노래(가창)	79 (19.75)	73 (18.25)
악기연주(기악)	23 (5.75)	35 (8.75)
가락짓기(작곡)	5 (1.25)	4 (1)
듣기(감상)	285 (71.25)	277 (69.25)
기타	8 (2)	11 (2.75)
계	400명(%)	400명(%)



## 2) 일주일에 고전음악을 듣는 빈도 수

### (1) 일주일에 고전음악을 듣는 빈도 수

일주일에 고전음악을 얼마나 듣고 있나 라는 질문에 800명의 연구 대상자 중 1-3곡은 86명(10.75%), 4-6곡 이상은 36명(4.5%)이 응답하였고, 학교에서나 TV를 통해서 듣는 것이 전부다 316명(39.5%),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듣게 된다 114명(14.25%), 전혀 듣지 않는다 248명(31%)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나 TV를 통해서 듣는 것이 전부다 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듣게 된다 라는 응답을 수동적 음악 듣기 태도로 보고 전혀 듣지 않는다 와 같은 분류라고 본다면 연구 대상자 중 85% 가량의 학생들이 고전음악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음악 취향은 사회적 현상이다. 사회적으로 결정되고 개인이 속한 사회적 삶 속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행위의 사회적 현상인 취향이 기능적 상호작용이라는 사회과정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을 보면 청소년들에게 균형 있는 다양한 장르를 접하게 해주어 새로운 음악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겠다.

표 12-1. 일주일에 고전음악을 듣는 빈도 수

일주일에 고전 음악을 듣는 빈도 수	%	계(명)
1-3곡	10.75	86
4-6곡 이상	4.5	36
학교에서나 TV를 통해서 듣는게 전부다	39.5	316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듣게 된다	14.25	114
전혀 듣지 않는다.	31	248
계	100	800

(2) 성별에 따른 일주일에 고전음악을 듣는 빈도 수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고전음악을 듣는 빈도를 알아 본 결과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고전음악을 좀 더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곡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연구대상자 남녀 각각 400명 중 남학생 47명(11.75%), 여학생 39명(9.75%)이 응답해 남학생들이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4-6곡 이상도 남학생 19명(4.75%), 여학생 17명(4.25%)으로 아주 미미한 차이지만 남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나 TV를 통해서 듣는게 전부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남녀 같은 분포를 보였으며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듣게 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 64명(16%), 여학생 50명(12.5%)으로 나타나 남학생의 분포가 높았다. 전혀 듣지 않는다는 남학생 112명(28%), 여학생 136명(34%)이 응답해 고전음악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여학생이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표 12-2. 성별에 따른 일주일에 고전음악을 듣는 빈도 수

일주일에 고전 음악을 듣는 빈도 수	성별	
	남학생	여학생
1-3곡	47 (11.75)	39 (9.75)
4-6곡 이상	19 (4.75)	17 (4.25)
학교에서나 TV를 통해서 듣는게 전부다	158 (39.5)	158 (39.5)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듣게 된다	64 (16)	50 (12.5)
전혀 듣지 않는다.	112 (28)	136 (34)
계	400명(%)	400명(%)

(3) 학교 구분에 따른 일주일에 고전음악을 듣는 빈도 수

학교 구분에 따른 분류에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보다 고전음악을 접하는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고등학생 각각 400명 중 1-3곡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중학생 57명(14.25%), 고등학생 29명(7.25%)이었으며, 4-6곡 이상이라는 응답은 중학생 28명(7%), 고등학생 8명(2%)으로 나타났다. 전혀 듣지 않는다는 응답에서도 중학생 100명(25%), 고등학생 148명(37%)이 응답했다. 이는 고등학생의 학업 부담률과 방과후의 시간적 자유로움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적은 이유도 한가지라고 볼 수 있겠다.

표 12-3. 학교 구분에 따른 일주일에 고전음악을 듣는 빈도 수

일주일에 고전 음악을 듣는 빈도 수	학교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1-3곡	57 (14.25)	29 (7.25)
4-6곡 이상	28 (7)	8 (2)
학교에서나 TV를 통해서 듣는게 전부다	162 (40.5)	154 (38.5)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듣게 된다	53 (13.25)	61 (15.25)
전혀 듣지 않는다.	100 (25)	148 (37)
계	400명(%)	400명(%)

3) 연간 음악회 관람 빈도

(1) 연간 음악회 관람 빈도

1년에 음악회에 직접 가서 관람하는 횟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에서 연구대상자 800명 중 364명(45.5%)이 1년에 1-2회 정도 음악회를 직접 관람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가지 않는다 352명(44%), 3-4회 67명(8.38%), 7회 이상 10명(1.25%), 5-6회 7명(0.87%)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청소년들이 응답한 음악의 흥미와 비교해 볼 때 음악을 듣는 시간도 부족함이 많이 보였으나 연주회장을 찾는 직접적인 음악 체험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 기기의 발전과 대중적 보급, 유선·위성을 비롯한 방송매체의 확장, 노래방 같은 수용공간의 다변화에 따라 음악회의 직접 관람이 아니어도 청소년들의 시각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매체의 영향도 있겠으나 음악 듣기의 방법 중 가장 적극적인 형태인 연주회 관람으로 같은 공간에서 연주자와의 호흡에서 오는 현장감과 음악적 감동을 통해 음악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

표 13-1. 연간 음악회 관람 빈도

1년에 음악회에 가는 빈도수	%	계(명)
가지 않는다	44	352
1-2회	45.5	364
3-4회	8.38	67
5-6회	0.87	7
7회이상	1.25	10
계	100	800

(2) 성별에 따른 연간 음악회 관람 빈도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응답자들 중 남학생들이 연주회장을 찾는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가지 않는다는 문항에 남녀 각각 400명의 연구 대상자 중 남학생 155명(38.75%), 여학생 197명(49.25%)이 응답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연주회장을 찾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회를 연간 1-2회 정도 찾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 194명(48.5%), 여학생 170명(42.25%)으로 나타났고, 3-4회라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 43명(10.75%), 여학생 24명(6%)이 응답해 남학생들과의 차이가 보인다. 가지 않는다는 응답에 여학생들의 높은 분포는 특히 서귀포시 지역의 여학생들의 응답으로 인함인데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표 13-2. 전혀 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분포도

지역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계	%
	고/남	고/여	중/남	중/여	고/남	고/여	중/남	중/여		
분포	38	47	34	43	47	60	35	60	364명	44

표 13-2. 성별에 따른 연간 음악회 관람 빈도

1년에 음악회에 가는 빈도수	성별	
	남학생	여학생
가지 않는다	155 (38.75)	197 (49.25)
1-2회	194 (48.5)	170 (42.5)
3-4회	43 (10.75)	24 (6)
5-6회	2 (0.5)	5 (1.25)
7회이상	6 (1.5)	4 (1)
계	400명(%)	400명(%)

(3) 학교 구분에 따른 연간 음악회 관람 빈도

학교 구분에 따른 분류에서는 차이가 심하지는 않으나 가지 않는다 와 1-2회 찾는다는 문항에는 고등학생이 약간 높은 응답을 하였고 3-4회라고 응답한 학생은 중·고등학교 각각 400명의 학생 중 중학생은 38명(9.5%), 고등학생 29명(7.25%)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3-3. 학교 구분에 따른 연간 음악회 관람 빈도

1년에 음악회에 가는 빈도수	학교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가지 않는다	173 (43.25)	179 (44.75)
1-2회	180 (45)	184 (46)
3-4회	38 (9.5)	29 (7.25)
5-6회	4 (1)	3 (0.75)
7회이상	5 (1.25)	5 (1.25)
계	400명(%)	400명(%)

(4) 지역별 구분에 따른 연간 음악회 관람 빈도

지역별 구분에서 연간 3-4회 정도 음악회에 간다는 문항에서는 제주시와 서

귀포시는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가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학생은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400명의 학생 중 제주시 150명(37.5%), 서귀포시 202명(50.5%)으로 나타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2회라고 응답한 학생도 제주시 204명(51%), 서귀포시 160명(40%)으로 나타나 제주시의 학생들보다 서귀포시의 학생들이 음악회를 직접 찾는 빈도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회를 직접 찾는 학생들을 비교해 볼 때 음악회를 찾는 빈도 수가 낮은 항목에 응답한 학생들은 성별, 학교별, 지역별에 구분에 따라 차이가 보이나 음악회 찾는 빈도 수가 높은 항목에 응답한 학생들은 여러 가지 구분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3-4. 지역별 연간 음악회 관람 빈도

1년에 음악회에 가는 빈도수	지역별	
	제주시	서귀포시
가지 않는다	150 (37.5)	202 (50.5)
1-2회	204 (51)	160 (40)
3-4회	33 (8.25)	34 (8.5)
5-6회	6 (1.5)	1 (0.25)
7회이상	7 (1.75)	3 (0.75)
계	400명(%)	400명(%)

#### 4) 음악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이유

##### (1) 음악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이유

음악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연구 대상자 800명의 학생 중 222명(27.75%)의 학생이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217명(27.13%)의 학생이 흥미가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언제 하는지 몰라서라고 144명(18%)이 응답하였고, 내가 관심 있는 음악회가 없어서라고 127명(15.88%), 경제적인 이유로 자주 찾지 못한다고 41명(5.12%)이 응답하였다. 기타 49명(6.12%)이 응답하였는데 그 의견으로는 음악회장과 거리가 멀어서 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있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지역적인 영향으로 여러 종류의 관심 있는 음악



회가 자주 열리지 않아 자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언제 하는지 몰라서 음악회를 자주 찾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음악회의 홍보 역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내가 관심 있는 음악회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관심 있는 음악회란 것들이 지역적인 영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겠는데 이는 제주도내 청소년들은 지역적으로 음악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흥미와 자극만을 추구하는 음악회일 필요는 없겠지만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음악회의 다양화와 그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 2002년 8월에 호암아트홀에서 청소년을 위해 기획한 <2002 호암 청소년 음악회 페스티벌>의 시리즈형 음악회처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딱딱한 제목이 아닌 ‘눈으로 듣는 바로크 음악’, ‘트리오의 모든 것’, ‘이야기가 있는 피아노’, ‘현악기+목관악기’, ‘실내악의 밤-삼각관계’, ‘어디선가 본 듯한 음악’, ‘장르를 넘나드는 클래식 기타’ 등 한번쯤 연주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독특한 테마를 붙여 청소년에게 한 발 다가선 것 같이 지역 청소년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야 하겠다.



표 14-1. 음악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이유

음악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이유	%	계(명)
흥미가 없어서	27.13	217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27.75	222
언제 하는지 몰라서	18	144
내가 관심 있는 음악회가 없어서	15.88	127
경제적인 이유로	5.12	41
기타	6.12	49
계	100	800

(2)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이유

학교 구분에 따른 분류에서 연구대상자 중·고등학생 각각 400명 중 중학생들은 흥미가 없어서 자주 찾지 못한다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답(110명/27.5%)

한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자주 찾지 못한다고 응답(116명/29%)하고 있다. 중학생에 비해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부담감이 높아 문화생활에도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언제 하는지 몰라서 음악회를 자주 찾지 못한다고 한 학생은 중학생 91명(22.75%), 고등학생 53명(13.25%)이 응답해 중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음악회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관심 있는 음악회가 없어서 찾지 않는다는 응답에서 중학생은 56명(14%)이 응답한 반면, 고등학생은 71명(17.75%)이 응답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음악적 욕구의 다양함을 볼 수 있다.

표 14-2.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이유

음악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이유	학교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흥미가 없어서	110 (27.5)	107 (26.75)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106 (26.5)	116 (29)
언제 하는지 몰라서	91 (22.75)	53 (13.25)
내가 관심 있는 음악회가 없어서	56 (14)	71 (17.75)
경제적인 이유로	10 (2.5)	31 (7.75)
기타	27 (6.75)	22 (5.5)
계	400명(%)	400명(%)

### (3) 지역에 따른 음악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이유

음악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이유를 지역 구분에 따라 분류하면 서귀포시 지역의 청소년들은 흥미가 없어서 자주 찾지 못한다 라고 114명(28.5%)이 응답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제주시 지역의 청소년들은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자주 찾지 못한다고 117명(29.25%)이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적으로 볼 때 제주시 지역 보다 서귀포시 지역이 음악회 개최 빈도가 낮아 제주시의 청소년들이 느끼는 음악회의 빈도 수 보다 상대적으로 음악회가 적으며 그 중에 청소년들의 흥미 있는 음악회를 찾기로 좀 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응답의 결과에서도 지역적으로 서귀포시 청소년들 보다 제주시의 청소년들이 학업 부담을 좀 더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3. 지역에 따른 음악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이유

음악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이유	지역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흥미가 없어서	103 (25.75)	114 (28.5)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117 (29.25)	105 (26.25)
언제 하는지 몰라서	71 (17.75)	73 (18.25)
내가 관심 있는 음악회가 없어서	59 (14.75)	68 (17)
경제적인 이유로	24 (6)	17 (4.25)
기타	26 (6.5)	23 (5.75)
계	400명(%)	400명(%)

#### 4. 개인적 음악 취향과 의식

##### 1) 제주도내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

###### (1) 제주도내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

가장 선호하는 음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연구 대상자 800명의 학생 중 484명(60.5%)이 대중가요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팝송 70명(8.75%), 고전음악 27명(3.38%), 국악 4명(0.5%), 구분없이 듣는다 177명(22.12%), 그리고 기타 38명(4.75%)이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의 음악 취향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현상은 일반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구분 없이 듣는다 라는 문항에 22.12%의 학생들이 응답하여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싶은 청소년들의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음악적 가치로 볼 때 마음에 평온과 감동을 주는 고전음악과 우리의 정서에 맞는 우리의 음악으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생활과 함께 해 온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국악에 대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남은 안타까운 일임을 시사한다. 기타의 응답으로는 대중가요와 팝송을 모두 좋아한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있었고, Newage 음악<sup>42)</sup>, 연주음악, 가스펠(종교음악), 일본의 비주얼락<sup>43)</sup> 이라고 특정음악을 세분하여 응

42) 무드음악, 또는 환경음악, 더 나아가 듣기에도 부담 없고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공해 음악이라고까지 부른다. 또는 비트가 없는 서정성 깊은 음악, 동양

답하였다.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의 획일성, 극도의 상업성, 그리고 대중매체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상황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환경이나 다양한 매스미디어와 컴퓨터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음악의 장르가 주로 상업성이나 대중성과 오락성에 치중되어 있음에 의한 원인을 지적할 수도 있다. 어떤 장르의 음악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으나 음악교육의 본질면에서 볼 때는 음악은 오락성이나 어떤 놀이의 흥미적 수단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음악교육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미적 표현과 느낌, 새로운 창의력과 창조성을 도출시키고 질 높은 음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음악교육의 학문적 견지와 교육적 가치를 생각할 때 음악에 대해 균형 있고 폭넓은 음악의 장르를 체험하게 하여 음악, 그 자체의 음향적 가치성도 중요하나 좋은 음악을 듣고 즐기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음악이 나타내는 내면적 깊이와 가치를 인식하고 느끼게 할 때 음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삶의 질이 보다 값지고 운택해진다고 하겠다.



적 명상음악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그 음악적 특성상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늘날 대중음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감각적인 록(rock) 음악에 반감을 느낀 음악가들이 동양의 신비적이고 즉흥적인 음악에 매료되어 그러한 동양적 신비감과 정적인 분위기를 주로 고전음악이나 포크음악에 사용되는 어쿠스틱 악기나 신시사이저와 같은 최첨단 전자악기를 이용해 동서양의 교감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뉴에이지 음악은 고전음악의 위선성과 대중음악의 경박성을 넘어선 음악, 다른 말로 고전음악의 난해함과 대중음악의 기계음을 탈피한 자연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재즈의 자연스런 리듬과 멜로디와 결합해 형성된 뉴에이지 음악도 있는데 그 중 재즈의 요소가 강한 것은 또다시 퓨전 재즈(fusion jazz)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연주가로는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톤, 플루트 주자 폴 혼, 하프 주자 안드레아스 폴렌바이터 등이 있다. 1986년부터 그래미상에 ‘뉴에이지 음악’ 부문이 신설됨으로써 하나의 음악 장르로 정착되었다.

- 43) 비주얼락은 음악의 시각화이다. 비주얼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비주얼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밴드들은 화려하다 못해 부담스러울 정도다. 아직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엑스재팬(X-JAPAN) 이후에 짙은 화장의 비주얼 밴드는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 홍대나 신촌의 인디 밴드 공연장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하라주쿠(지역)이라는 곳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공간이었다. 비슷비슷한 실력을 가지고있는 엄청난 수의 아마추어 그룹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화려한 치장이었고, 이러한 유래로부터 시작된 비주얼 락은 점차 발전하여 엑스재팬(X-JAPAN)이라는 그룹에서 그 개념이 확립되었다.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짙은 화장과 형형색색의 머리, 화려한 의상 등의 비주얼한 면을 강조하는 비주얼 락은 일본에서 파생한 장르로서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음악을 대표하는 장르 중 하나로 우뚝 서게 되었다.

표 15-1. 제주도내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

가장 선호하는 음악	%	계(명)
대중가요(한국)	60.5	484
팝송(외국가요)	8.75	70
고전음악(클래식)	3.38	27
국악(민요)	0.5	4
구분 없이 듣는다	22.12	177
기타	4.75	38
계	100	800

(2) 성별에 따른 제주도내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

가장 선호하는 음악을 성별에 따라 분류하면 대중가요를 제외한 모든 장르에서 여학생들이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중가요는 남녀 각각 400명의 연구 대상자 중 남학생 245명(61.25%), 여학생 239명(59.75%)이 응답해 남학생들이 여학생 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팝송의 경우 남녀, 학교별 그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고전음악의 경우 남학생 12명(3%), 여학생 15명(3.75%)이 응답해 여학생들의 선호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학생들의 선호가 돋보인다. 고전음악 선호도를 학교별 구분으로 보면 중·고등학교 연구 대상자 각각 400명중 중학생 22명(5.55%), 고등학생 4명(1%)이 응답해 중학생의 고전음악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앞서 분석한 일주일에 고전음악을 듣는 빈도(1-3곡, 4-6곡 이상: 중/21.25%, 고/9.25%)와도 같은 결과로 제주도내의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에 비해 고전음악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표 15-2. 성별에 따른 제주도내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

가장 선호하는 음악	성별	
	남학생	여학생
대중가요(한국)	245 (61.25)	239 (59.75)
팝송(외국가요)	33 (8.25)	37 (9.25)
고전음악(클래식)	12 (3)	15 (3.75)
국악(민요)	3 (0.75)	1 (0.25)
구분 없이 듣는다	84 (21)	93 (23.25)
기타	23 (5.75)	15 (3.75)
계	400명(%)	400명(%)

### (3) 선호하는 이유

위와 같이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청소년은 음(가락)이 좋아서 라고 800명의 연구 대상자 중 368명이 응답해 45.38%의 분포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주위에서 많이 접할 수 있어서 281명(35.12%), 가사가 좋아서 69명(8.63%),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10명(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77명(9.62%)이 응답했다. 기타의 응답으로 제시된 의견은 대중가요의 경우 음이나 가사 모두가 좋아서라고 응답하는 학생들, 특정가수를 좋아해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부를 수 있어서,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라고 응답했으며 고전음악인 경우 마음이 편안해져서 라고 응답하는 학생들, 팝송의 경우 영어도 배울 겸 듣기도 좋고 도움이 되어서 라고 응답하는 학생들, 모든 음악이 개성이 있어서 구분 없이 듣는다 라고 응답하는 학생들, 종교의 영향으로 선호한다고 응답하는 학생들, 심심할 때 시간을 보내기 편해서, 악기를 배우고 있어서, 게임 음악에 많이 나와서 선호한다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청소년들의 응답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좋아한다는 응답, 가수가 되고 싶어서, 가수를 좋아해서 라고 응답하는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가 엇보이는 응답도 많았으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가락이 주는 만족감 때문에 좋아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들은 부모세대와 학교생활로 대표되는 일상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출구로 음악을 선택하고 있으며 자신의 욕구를 잘 표현할 수 없는 생활 속에서 자기의 개성을 확인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성향이 과격적인 리듬이나 선율, 새로운 경향의 음악, 또래 친구집단들과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감수성이 강한 계층이므로 이런 영향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주위에서 많이 접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하였는데 사회적 환경이 음악에 대한 일반적 상식을 벗어나 고전음악이나 우리의 전통음악을 제외한 일반대중성의 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과 음악에 대한 교육성과 가치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흥미나 오락의 일부로 청소년들에게 생활 속에서 무방비의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은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과 학교 음악교육, 그리고 음악적 사회교육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과도한 학교 수업과 그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장소도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기분전환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음악을 택하게 되는데 다양한 장르의 많은 음악들은

청소년에게 제대로 접하게 되지 못하고 그들의 관심과 기호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점차 획일적으로 평균화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감수성은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고 그들은 신선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 다채널 미디어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청소년들은 그들의 의식 도처에 깔린 음악에 관한 정보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고 있다. 음악에 반응을 보이게 하는 데는 반복적 접촉과 친밀감을 필요로 한다. 접하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관심으로 청소년들의 음악 취향이 결정된다면 청소년들은 좋은 음악에 대해 무감각한 단계에 이르러 그냥 수동적인 현상으로 음향기기나 전파매체를 통하여 음악의 질적인 성향은 배제된 채 좋고 나쁨의 선택이 없는 대중성의 음악적 환경에 노출되고 마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개선하고 음악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표 15-3. 선호하는 이유

선호하는 이유	%	계(명)
가사가 좋아서	8.63	69
음이 좋아서	45.38	363
주위에서 많이 접할 수 있어서	35.12	281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1.25	10
기타	9.62	77
계	100	800

(4) 음악에 흥미가 매우 높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악

음악에 흥미가 매우 높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은 연구 대상자 전체 응답에서와 같이 대중가요에 가장 높은 응답(75명/54.35%)을 하였다. 그러나 대중 가요를 가장 선호한다는 전체 응답 60.5%와 비교하여 다소 낮은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외국가요와 고전음악, 구분없이 듣는다 의 응답에 다소 높은 분포로 응답하고 있어 음악에 흥미가 매우 높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조금 다양하게 음악의 선호를 즐거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음악의 흥미가 매우 높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국악은 거의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5-4. 음악에 흥미가 매우 높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악

	대중가요	외국가요	고전음악	국악	구분없이 듣는다	기타	계
매우 높다	75 (54.35%)	15 (10.87%)	6 (4.35%)	0 (0%)	35 (25.36%)	7 (5.07%)	138명 (100%)

(5) 자주 듣고 접하는 음악은 좋아하는 음악인가

학생이 자주 듣고 접하는 음악은 학생이 좋아하는 음악인가 라는 질문에서 연구 대상자의 83.63%(669명)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1.88%(15명)가 아니다, 13.87%(111명)가 모르겠다, 0.62%(5명)가 기타에 응답하였다. 이는 청소년기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어 선호와 취향이 확실해지면서 표현방법이 적극적으로 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5. 자주 듣고 접하는 음악은 좋아하는 음악인가

자주 듣고 접하는 음악은 좋아하는 음악인가	%	계(명)
그렇다	83.63	669
아니다	1.88	15
모르겠다	13.87	111
기타	0.62	5
계	100	800

2)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

(1)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연구대상자 800명중 501명(62.63%)이 TV나 방송매체로 인해 관심을 갖게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친구의 영향이라고 94명(11.75%),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라고 82명(10.25%), 학교수업·음악선생님 영향이라고 44명(5.5%),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12



명(1.5%)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도 67명이 응답하여 8.37%로 나타났는데 그 의견으로는 인터넷 영향, 형제 자매의 영향, 게임을 할 때 나오는 음악 때문에, 악기를 배우서, 종교활동의 영향, 대중가요나 가수를 좋아하게 돼서, 음악회를 보고 나서, 선율이 아름다운 좋은 음악을 듣고 나서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고 응답했다.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들 중 자신의 음악적 체험 활동을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응답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음악회를 직접 보고 나서라든가 악기를 배우고 나서라든가 종교 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는 음악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좋은 자극이 되어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경우들이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때 긍정적인 음악문화가 형성된다고 하겠다. 부모나 학교 수업에서의 음악적 선호와 청소년들의 음악적 선호의 구분이 확실해 지면서 자신의 좋아하는 음악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나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가 부모나 교사로부터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 방송매체로 옮겨가고 있다. TV나 방송매체를 통해 음악에 관심을 갖는 동기가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TV나 방송매체가 갖는 역할이 막중함을 엿볼 수 있다. 음악은 시각적인 이미지가 부가될 때 그 관심이 더욱 배가되고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커진다고 보겠다.

표 16-1.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	%	계(명)
부모님의 영향	1.5	12
학교수업·음악선생님 영향	5.5	44
TV나 방송매체	62.63	501
본인의 노력에 의해	10.25	82
친구의 영향	11.75	94
기타	8.37	67
계	100	800

(2) 성별에 따른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남녀 모두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응답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수업·음악선생님 영향인 경우 연구대상자 남녀 각각 400명의 학생 중 남학생은 32명(8%)이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12명(3%)이 응답하여 학교수업에 여학생들 보다 남학생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V나 방송매체의 영향인 경우 남학생 223명(55.75%), 여학생 278명(69.5%)이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방송매체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은 TV 보다 컴퓨터 게임에 더 열중하는 영향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응답에서 남학생 51명(12.75%), 여학생 31명(7.75%)이 응답해 남학생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이 보인다. 남학생에 비해 음악의 흥미가 조금 더 높은 여학생의 노력으로는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친구의 영향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 52명(13%), 여학생 42명(10.5%)이 응답해 남학생들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남녀학생 모두 TV나 방송매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나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방송매체에 좀더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들보다 학교수업·음악선생님, 친구로부터 받는 영향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6-2. 성별에 따른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	성별	
	남학생	여학생
부모님의 영향	6 (1.5)	6 (1.5)
학교수업·음악선생님 영향	32 (8)	12 (3)
TV나 방송매체	223 (55.75)	278 (69.5)
본인의 노력에 의해	51 (12.75)	31 (7.75)
친구의 영향	52 (13)	42 (10.5)
기타	36 (9)	31 (7.75)
계	400명(%)	400명(%)

(3)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

학교 구분에 따른 분류에서의 차이는 부모님의 영향인 경우 연구대상자 중·고등학생 각각 400명중 중학생 10명(2.5%), 고등학생 2명(0.5%)이 응답하여 자녀에게 음악적 영향력을 주는 부모의 분포도가 중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수업·음악선생님의 영향인 경우 중학생 36명(9%), 고등학생 8명(2%)이 응답하여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학교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수업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TV나 방송매체인 경우는 중학생 238명(59.5%), 고등학생 263명(65.75%)이 응답해 고등학생들이 방송매체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관심을 갖는 동기가 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중학생 33명(8.25%), 고등학생 49명(12.25%)이 응답해 관심 있는 음악에 대해 직접적인 노력은 고등학생들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로부터의 영향 또한 중학생 43명(10.75%)에 비해 고등학생 61명(12.75%)이 응답해 고등학생들의 친구의 영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관심으로 인해 얻게 되는 친구집단의 연대감이 고등학교 남학생이 높음을 나타낸다.

표 16-3.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	학교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님의 영향	10 (2.5)	2 (0.5)
학교수업·음악선생님 영향	36 (9)	8 (2)
TV나 방송매체	238 (59.5)	263 (65.75)
본인의 노력에 의해	33 (8.25)	49 (12.25)
친구의 영향	43 (10.75)	51 (12.75)
기타	40 (10)	27 (6.75)
계	400명(%)	400명(%)

3)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음악 듣기 수준

(1)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음악 듣기 수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음악 듣기 수준은 어떤가 라는 질문에서 800

명의 응답자 중 537명(67.13%)의 학생이 자신의 음악 듣기 수준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낮은 편이다 라고 101명(12.62%), 높다 라고 98명(12.25%), 매우 높다 라고 37명(4.63%), 매우 낮다 라고 27명(3.37%) 순으로 응답하였다. 매우 높다 와 높다 를 음악 듣기수준이 높은 편으로 간주하면 1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낮다 를 포함한 낮은 편이라고 답한 학생들도 15.99%로 나타나 음악 듣기 수준이 낮은 편과 높은 편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높은 편과 보통이다 를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듣기 수준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이라 볼 때 학생들의 이러한 성향은 85%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17-1.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음악 듣기 수준

자신의 음악듣기 수준	%	계(명)
매우 높다	4.63	37
높다	12.25	98
보통이다	67.13	537
낮은편이다	12.62	101
매우낮다	3.37	27
계	100	800

(2) 성별에 따른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음악 듣기 수준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자신의 음악 듣기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학생은 여학생이 아주 미미한 차이지만 다소 높게 나타났고, 높다 라는 항목의 응답에서 남학생 54명(3.5%), 여학생 44명(11%)이 응답해 남학생들은 매우 높다는 응답은 아니지만 높다는 응답에 여학생 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매우 낮다라고 응답한 학생(남학생:16명/4%, 여학생:11명/2.75%)은 남학생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낮은편이다 라고 응답한 학생 역시 남학생들의 분포가 높았다.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 259명(64.75%), 여학생 278명(69.5%)이 응답하여 남학생이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매우 높다와 높다, 보통이다 를 자신의 음악듣기 수준의 긍정적인 평가라고 간주하면 남학생은 331명(82.75%),

여학생은 341명(85.25%)이 응답해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음악듣기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이 앞서 응답한 일주일에 고전음악을 듣는 빈도와 1년에 음악회장에 직접 가서 관람하는 빈도의 응답에서 남학생에 비해 낮은 분포가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듣기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선호 음악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음악 듣기의 수준은 표 17-3의 듣기 수준이 높은 학생들과 전체 응답자의 선호음악 분포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 응답자에 비해 외국가요(팝송)의 선호에 비중이 늘어났으며 기타의견의 비중이 늘어난 것 외에는 고전음악이나 국악에 대해 선호하는 학생의 분포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청소년들은 선곡이나 음악을 듣는 방법상의 수준이 아닌 형태로 자신의 듣기 수준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음악교육은 학생들의 폭넓은 음악 수용을 의도하므로 포괄적인 듣기의 각도에서 그 방법적 측면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17-2. 성별에 따른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음악 듣기 수준

자신의 음악듣기 수준	성별	
	남학생	여학생
매우 높다	18 (4.5)	19 (4.75)
높다	54 (13.5)	44 (11)
보통이다	259 (64.75)	278 (69.5)
낮은편이다	53 (13.25)	48 (12)
매우낮다	16 (4)	11 (2.75)
계	400명(%)	400명(%)

표 17-3. 음악듣기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선호음악 분포와 전체 응답자의 선호음악 분포도

	대중가요	외국가요	고전음악	국악	구분없이 듣는다	기타	계
매우 높다	18 (48.65%)	7 (18.92%)	1 (2.7%)	0 (0%)	8 (21.62%)	7 (8.11%)	37명 (100%)
전체 응답자	484 (60.5%)	70 (8.75%)	27 (3.38%)	4 (0.5%)	177 (22.12%)	38 (4.75%)	800 (100%)

(3) 학교 구분에 따른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음악 듣기 수준

학교 구분에 따른 분류에서 전체적으로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음악듣기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우 높다고 응답한 고등학생은 연구 대상자 400명 중 24명(6%)이 응답하였고 높다고 응답한 학생은 56명(14%)으로 나타났다. 낮은편이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중학생 65명(16.25%)에 비해 고등학생은 36명(9%)이 응답해 낮은 분포를 보였다.

표 17-4. 학교 구분에 따른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음악 듣기 수준

자신의 음악듣기 수준	학교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매우 높다	13 (3.25)	24 (6)
높다	42 (10.5)	56 (14)
보통이다	266 (66.5)	271 (67.75)
낮은편이다	65 (16.25)	36 (9)
매우낮다	14 (3.5)	13 (3.25)
계	400명(%)	400명(%)



(4) 지역에 따른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음악 듣기 수준

지역에 따른 분류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낮은 편이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연구대상자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400명의 학생 중 제주시 49명(12.25%), 서귀포시 52명(13%)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낮다 라고 응답한 학생은 제주시 11명(2.75%), 서귀포시 16명(4%)이 응답하여 서귀포시의 학생들이 제주시 학생들 보다 자신의 음악 듣기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17-5. 지역에 따른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음악 듣기 수준

자신의 음악듣기 수준	지역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매우 높다	19 (4.75)	18 (4.5)
높다	50 (12.5)	48 (12)
보통이다	271 (67.75)	266 (66.5)
낮은편이다	49 (12.25)	52 (13)
매우낮다	11 (2.75)	16 (4)
계	400명(%)	400명(%)

#### 4) 음악 듣기가 필요한 이유

##### (1) 음악 듣기가 필요한 이유

음악듣기가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서 800명의 연구대상자 중 363명이 생각이나 행동이 안정된다 라고 응답해 45.38%로 나타나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감정이 풍부해진다 292명(36.5%), 교양을 쌓기 위해 35명(4.38%), 학습 효과의 증대를 위해 11명(1.37%), 음악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 5명(0.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의견으로도 94명이나 응답해 11.75%를 나타냈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기분이 좋아져서, 시간 보내기가 좋아서, 친구와 이야기 나누려고, 조용한 것이 싫어서, 노래 부르려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분전환을 위해, 잠자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등 다양한 의견으로 음악 듣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은 음악을 들으면 생각이 안정되고 감정이 풍부해진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외의 다양한 의견을 통하여 음악 듣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음악만 따로 떼어내어 그 교육적 의미를 논할 수 없다. 음악듣기 활동은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키면서도 그 자체로 '음악을 통한 교육'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성격이 강하다. 음악듣기는 음악의 생산자 내지 재생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악을 자신의 삶에서 더 잘 향유할 수 있는 수용자를 양성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 음악교육의 일차적 목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능연마의 수준을 넘어서는 인간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은 듣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sup>44)</sup>

표 18. 음악 듣기가 필요한 이유

음악 듣기가 필요한 이유	%	계(명)
감정이 풍부해진다	36.5	292
교양을 쌓기 위해	4.38	35
생각이나 행동이 안정된다	45.38	363
음악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	0.62	5
학습 효과가 증대를 위해	1.37	11
기타	11.75	94
계	100	800

44) 주대창(2001), 전거서, p.260-262.

## 5) 제주도내 청소년의 음악 장르별 호감도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음악 장르별 호감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 800명 중 439명(54.88%)의 학생이 대중가요를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하였고, 외국가요 162명(20.25%), 고전음악 53명(6.63%), 국악 19명(2.38%)이 응답하였다.

이는 가장 선호하는 음악과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음악을 구분할 때 보다 여러 장르의 음악에 보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좋아한다는 문항에도 대중가요 241명(30.13%), 외국가요 314명(39.25%), 고전음악 176명(22%), 국악 44명(5.5%)이 응답하였다. 보통이다 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응답에 고전음악과 국악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대중음악 15명(1.87%), 외국가요 28명(3.5%), 고전음악 67명(8.37%), 국악 197명(24.62%)이 응답하여 고전음악과 국악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모든 음악 장르에 분포는 다르지만 부정적으로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의 이유로 앞서도 연구된 바와 같이 가락이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주위에서 많이 접할 수 있어서라고 그 음악을 선호한다는 이유를 밝힌 분포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이 좋아하지 않는 음악의 이유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좋아하지 않는 음악은 단조로운 가락과 경쾌하지 못한 진행으로 느끼고 딱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런 느낌 때문에 지루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그런 모든 것이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가창을 좋아하는 청소년들도 부르는 방법조차 익숙하지 않은 음악이라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어서 자기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곡들은 대중적이지 않아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생소하고 공감이 가지 않는 음악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결국 청소년들은 많이 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음악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 음악에 대한 흥미 또한 사라져서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단정하게 되어 점점 멀어지고 쉽게 접하고 익숙한 음악에 호감도는 높아져서 특정음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결과는 초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청



소년들에게 좋은 음악, 여러 장르의 음악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취향은 통제되고 영향을 받고 지시 받을 수 있다.

표 19. 제주도내 청소년의 음악 장르별 호감도      단위: 명(%)

음악호감도	대중가요	외국가요	고전음악	국악
매우 좋아한다	439(54.88%)	162(20.25%)	53(6.63%)	19(2.38%)
대체로 좋아한다	241(30.13%)	314(39.25%)	176(22%)	44(5.5%)
보통이다	79(9.88%)	228(28.5%)	286(35.75%)	202(25.25%)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26(3.25%)	68(8.5%)	218(27.25%)	338(42.25%)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15(1.88%)	28(3.5%)	67(8.38%)	197(24.63%)



## IV. 결론 및 제언

교육은 학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서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주체적인 인간형을 형성하는 데 있다. 인간들에게 본래 존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 아니라 인간 본래의 것을 잘 살려주는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 할 것이다. 교육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경험이 쌓이고 그것들이 다시 재구성되고 또 다음의 새로운 경험으로 이끌게 되는데 삶의 적절한 경험이 교육이라면, 좋은 경험은 좋은 삶을 이끌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다. 인간은 그러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언어로서 표현하는데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은 정확하게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깊은 내적·주관적 차원에서의 느낌, 감정을 표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다. 음악을 통해 인간은 심오한 개인적인 사상과 감정을 다른 인간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받으며 언어가 수행할 수 없는 차원에서의 인간과 인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각기 시대나 문화는 그의 독특한 음악 문화를 갖고 있다. 이는 음악은 인간 사회와의 밀접한 유대 관계 속에서 변천하고, 발전하며,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 인간은 그의 본능적인 창의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그의 음악 미적 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감정과 사고를 표현하는 음악을 경험함으로써 인간은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삶을 느낌의 경험으로 이해하게 된다. 음악에 대한 흥미와 음악을 좋아하는 태도는 사실 음악과의 좋은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한 흥미도나 가치관은 개개인이 그 대상과 가진 경험의 질과 그가 그 경험에 부여하는 가치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음악과의 좋은 경험은 자연스럽게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음악을 하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음악 시간이 즐겁고 가치 있으며, 개인의 미적 정서를 충분히 발달시켜 주는 시간이라면 이는

곧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청소년들이 음악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일부 청소년들은 음악 감상을 입시에 매달리고 대화의 부재 속에 쌓인 불만을 음악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주위에서 보살펴주고 따스한 사랑을 베풀 때 정서적으로 안정된 청소년들이 음악 그 자체의 장점을 부드럽게 받아들이지만, 정서교육의 부재와 애정결핍 상황에서 듣는 음악은 이미 음악이 주는 가치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본 연구에 나타난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음악선호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리적 환경에 따른 음악 취향으로 분석한 음악을 듣는 시간의 응답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짧은 시간 동안 음악을 듣는다는 응답에서는 남학생, 중학교, 서귀포시의 응답이 높았고 3시간 이상, 장시간의 응답에서는 여학생, 고등학교, 제주시의 학생들의 분포가 높았다. 기기 이용에서는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음악 듣기가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고 있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기기 이용이 좀더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서귀포시보다 제주시의 학생들의 기기 이용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하여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 이용은 컴퓨터의 사적 공간 환경조성의 특징과 개인의 다양한 취향과 관심이 요구하는 많은 정보가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과 적성에 매우 적합한 상황이어서 그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음악에 대한 정보 역시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이 얻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활용은 남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응답이 높았으며, 음악시간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에서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음악을 듣는 형태에서는 기타의 의견에 많은 응답을 하였는데 이 역시 인터넷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는 응답이었고, 실내에서 집중해서 듣는다는 응답과 공부하면서 듣는다는 응답도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청소년들의 음악에 대한 관심과 취향이 적극적인 형태로 자신의 선호음악을 수용하고 있었으며 항상 음악을 켜두고 있다는 응답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의 음악은 생활 환경의 하나가 되어 있었다.

심리적 음악취향에 따른 분류에서 음악이 듣고 싶을 때에 대한 응답은 특정 상황만이 아닌 여러 교차되는 상황과 다양한 상황에 응답하는 학생들도 많았으나 기분이 좋을 때를 응답하는 학생의 분포가 가장 높았다. 감정의 상태로 보면 여학생이 그리고 고등학생이 더 다양한 상황에서 응답하였다. 늘 듣고 싶다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이는 음악의 영향력이 기분전환의 의미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음악을 가까이하여 음악이 갖고 있는 미적 가치와 더불어 음악의 문화적인 기능 또한 간과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님의 반응에서 부모님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들이 부모님의 무관심을 더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다. 음악을 같이 듣는 사람이 부모와 교사에서 점점 친구와 형제자매로 옮겨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음악을 같이 듣는 사람의 질문에서 청소년들은 혼자서 듣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이는 청소년기의 특징인 자기 영역의 창조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에 대한 흥미는 전반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분포가 다소 높았다.

개인적 음악환경에 따른 분류에서 음악 듣기를 가장 부담 없는 분야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창과 악기연주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창의 경우 미미한 차이였지만 남학생이 좀 더 자신 있다고 응답하였고 악기연주의 경우는 여학생의 응답이 높았다.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고전음악을 접하는 빈도 수에서 학교에서나 TV를 통해서 듣는것이 전부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고 전혀 듣지 않는다는 응답도 31%나 차지해 청소년들이 고전음악을 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전음악을 듣는 빈도에서 남학생, 그리고 중학생들이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과 과정상 음악 수업 시수가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들이 많고 음악에 대한 정보 또한 음악시간을 통해 얻는다는 중학생의 분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음악의 흥미면에서는 여학생들의 응답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은 고전음악을 듣는 빈도나 음악회에 가는 빈도에서 남학생보다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음악회에 직접 가서 관람하는 빈도에서도 아주 낮은 분포를 보였는데 전혀 가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어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음악의 체험이 많이 부족함이 보인다. 자주 찾지 못하는 이유에서 청소년들의 흥미가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는데 내가 관심 있는 음악회가 없다는 응답과 지역적인 이유로 음악 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응답도 많았다.

개인적 음악취향과 의식에 따른 분류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은 일반적인 응답과 다르지 않으나 구분 없이 듣는다는 응답도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음악 욕구를 나타내고 있었다. 고전음악의 선호도 물론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국악의 경우 청소년들은 거의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가요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장르에서는 여학생들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이유에서 가락이 좋아서, 주위에서 많이 접할 수 있어서라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청소년들의 선택과 취향이 확실해지면서 자주 듣고 접하는 음악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냐는 물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고 응답하였다. 음악의 정보 못지 않게 음악의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 역시 부모나 교사의 영향을 점차 벗어나 방송매체나 인터넷, 친구를 통한 정보에 의해 관심을 갖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넷 등 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로 인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음악듣기 수준을 보통이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는데 높다는 쪽의 응답은 중학생들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음악듣기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음악 듣기로 인해 생각이나 행동이 안정되고 감정이 풍부해진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다양한 이유로 음악 듣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장르별 음악 호감도에서 보면 가장 선호하는 음악을 물었을 때보다 조금 긍정적인 반응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모든 장르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을 응답한 학생들도 있었다. 청소년들은 싫어하는 음악의 이유로 단조로운 가락의 진행과 느리고 딱딱한 진행으로 어렵고 생소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모든 것이 접해 보지 못함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고 생각해 굳이 일부러 접하지 않게 되어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20세기를 이성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를 감성의 시대라고 한다. 감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다. 음악은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음악에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것은 음악이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사고를 표현하는 예술이기에 음악을 통하여 전달된 느낌과 사고를 재경험 함으로서 보이는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데 개개인의 감수성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

음악적 자극에 음악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음악이 이러한 감성 능력을 최대한 개발 시켜줌으로서 지적인 성장과 감성적인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다고 하겠다. 음악교육은 전인교육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교육임과 동시에 개인의 총체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다.

초·중등학교 음악교육의 목적은 전문적인 음악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음악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높은 미적 정조와 풍부한 인간성을 육성하는 데에 있으며, 교육목표는 ‘바람직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음악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심미안을 길러 인간의 음악적 성장을 꾀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갖게 하며, 질 높은 인간을 양성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시절 뿐 아니라 전 일생에 걸쳐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기본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음악이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때, 모든 음악이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음악만 그렇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주 마찰이 있다.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는 교육적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비록 흥미 없어 할지라도 클래식 음악을 계속 요구하여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즐거워하면서 접할 수 있는 음악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나은지가 현실에서 자주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음악은 상당한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악보로 적혀 있는 것은 연주될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울릴 수 있다. 일정하게 주어진 음악도 항상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음악 자체는 실제의 삶에서 받은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음악은 삶의 여러 경험을 반영함으로 같은 음악도 여러 방식으로 나타난다. 어떤 노래는 밴드음악이 될 수도 있고, 또 밴드곡은 여러 가지의 관현악곡이 될 수도 있다. 가요가 성악곡처럼 불려지기도 하고 국악 창이 가곡을 연주하기도 하며, 고전음악이 대중음악적으로 연주되어 대중음악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많은 유연성을 갖고 있는 음악을 소개하고 응용할 때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음악의 유연성으로 예술음악의 이해를 위한 출발점을 만들어야 하겠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그들의 공감대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해되지 않으면 공감할 수 없고 공감되지 않으면 관심도 없는 것이다.

무엇을 들려 줄 것인가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서 나온다. 그래서 '무엇'보다 '어떻게'에 대한 고려가 음악수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겠다.

교육적 지향점이 없는 흥미 위주의 음악 수업은 학교 안에 존재 할 가치가 없다. 하지만 구태의연함으로 일관할 때 새로운 교육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청소년문화 건전화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학교이다. 지적·정서적 영역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도록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은 청소년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겠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우선 관심을 갖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교류할 수 있어야만 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건전한 정서를 위해서 의식 있고 건강한 음악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자생성에 의한 음악문화가 형성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음악을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음악을 듣게 해주어야 하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음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과 떼어놓고 이야기 할 수도 없다. 음악의 여러 장르들 사이에서 들어야 할 음악과 듣지 말아야 할 음악을 구분하기보다는 청소년들에 의해 어떤 음악이 어떻게 또 어떤 환경과 마음에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고전음악이나 국악처럼 좋은 음악이라도 따분하도록 느껴지게 들려주는 것은 그들의 감정 상태를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다. 반면 대중가요처럼 가벼운 음악이라도 청소년들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역할하기도 한다.

예술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음악은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세계의 모든 청소년들은 음악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또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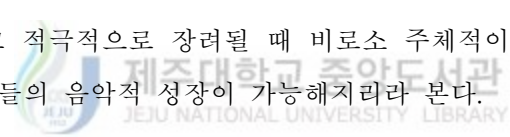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악적 환경은 분명 선별적이어야 한다. 교사는 다양한 음악적 자극이 있는 환경을 제시하고 그 자유로운 환경에서 음악적 가치관을 교사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닌 청소년 스스로가 다양한 음악적 체험을 통해 좋고 나쁜 것을 구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과정의 내면화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 그것은 청소년들과의 음악

적 취향의 차이를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중음악은 모든 청소년들이 즐기는 가장 보편적인 음악이 되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대중음악은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의 생활 속으로 밀착될 수 있었다. 대중음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폐해를 염려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는 여론이 많이 일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대중음악이 청소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화적 산물인가를 반증해 준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따져보고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고 가르쳐야 하는 곳이 바로 학교교육 현장인 것이다.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개선하고 음악적으로 교육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생활상을 음악 안으로 끌어안아 그 생활음악을 바탕으로 음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살아 있는 음악교육이 될 것이라 하겠다.

미래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개개인들의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다. 스스로 경험해 보고, 표현하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학교교육 현장에서 수용되고 적극적으로 장려될 때 비로소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음악문화, 그리고 청소년들의 음악적 성장이 가능해지리라 본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강현 · 성우제 · 김철진(1995), 「음악의 파장, 공명의 파장」, 대화출판사.
- 공석준(1986), 「音樂의 發見」, 세광음악출판사.
- 김인경 · 곽금주(1998), 「大衆音樂에 心醉한 靑少年들의 心理的 特性」, 집문당.
- 민은기 · 김대호(2000), 「한국 청소년의 음악교육 실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서양음악연구소.
- 서우석(1986), 「서우석 音樂論集 물결 높던 날들의 연가」, 나남.
- 서우석(1988), 「西洋音樂의 受容과 發展」, 나남.
- 송진범(1997), 「구조와 역사로 본 음악」, 도서 출판 작은우리.
- 송진범(2000), 「음악교육학」, 학문사.
- 이강숙(1989), 「音樂의 方法」, 민음사.
- 이장직(1990), 「대중화 시대의 음악」, 삼호출판사.
-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 이홍수(1993),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 임미경 · 장기범 · 함희주(2002),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벨로체.
- Radocy, E. Rudolf · Boyle, J. David, 「음악심리학(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 최병철 방금주 역(2001), 학지사.
- Leonhard, Charles & House, Robert W.(1972),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Foundations and Principles of Music Education)」, 안미자 역(199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Mursell, J. L. (1948), 「音樂의 成長을 위한 敎育(Education for Musical Growth)」, 한국음악 교재연구회 역(1986), 세광음악출판사.

### 〈논문〉

- 김성복(2002), “생활환경요인에 의한 음악적 견해 및 영향에 대한 고찰”, 「초등음악교육연구」, 제6집, 전국교육대학교 초등음악학회.
- 김선혜(2000), “현장음악교육의 문제점”, 「음악과 민족」, 제20호, 민족음악학회.
- 김혜경(2000), “TV방송음악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음악과 민족」, 제19호, 민족음악학회.
- 배장명(2000),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과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문주(1993), “바람직한 음악수업의 방향”, 「음악교육연구」, 제12호, 한국음악교육학회.
- 승윤희(2000), “감성지능의 이해와 음악교육의 역할”, 「음악교육연구」, 제19집, 한국음악교육학회.
- 안재신(1992), “음악과 음악교육에서의 상상력”, 「음악교육연구」 제 11호, 한국음악교육학회.
- 이건용(1999), “한국음악의 새로운 적응과 실천을 위하여”, 「민족음악의 이해 7」, 민족음악연구회.
- 정정연, 이윤경(1990), “올바른 음악교육을 위하여”, 「민족음악」, 제1집, 민족음악연구회.
- 주대창(2000), “음악교육에서의 미적교육”, 「연세음악연구」, 제7집,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 주대창(2001), “음악듣기 교육의 포괄적 이해”, 「음악과 민족」, 제 22호, 민족음악학회.
- 함희주(2000),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상호주관성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 19집, 한국음악교육학회.
- 황경숙(2000), “학교음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반성과 그에 대한 전망”, 「예술논총」 제3집,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기타>

성경희 음악교육 이론

<http://www.amadeusclass.co.kr/education1/contents/contents2.html>

성경희 21세기 음악 교육의 비전

[http://www.amadeusclass.co.kr/education1/contents/contents1\(02\).html](http://www.amadeusclass.co.kr/education1/contents/contents1(02).html)

주대창, 음악교육론

<http://www.um-ak.co.kr/gong/nonmun/ju-giwon.htm>

홍정수, 청소년과 교회음악

<http://www.um-ak.co.kr/gong/nonmun/hong-chongsoneyun.htm>

홍정수, 음악과 생활

<http://www.um-ak.co.kr/gong/gulmoum/hong-umsang.htm>

황희영, 재미와 재능

<http://www.um-ak.co.kr/column/jeamijeonung.htm>

〈ABSTRACT〉

**A Study on School Music Education Value and Role:  
by surveying teenagers' music preference**

- in the cities of Cheju and Seoguipo -

Ko, Hyun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ang, Hong-yong

Music is very important in the youth culture. Adolescents are seriously affected by music and songs they contact. National policies about culture, especially music, should discreetly be formulated in that regard, and teens shouldn't be forced to be familiar with any specific type of music.

What type of music is good or not good is a matter of perspective, but music preference couldn't be said to absolutely depend on individual tastes, since there is definitely a certain trend in that. That is the reason why we should turn our attention to what good music is and what deserves attention.

Education comes from experience. One could have interest in music and become fond of it when he or she has good experience with it. And one could learn to be responsive to music when he or she keep in contact with it and forge intimacy with it.

If youngsters are just allowed to remain indifferent to what's unknown and unexperienced, they will be insensible of good music, just being exposed to musical environments provided by mass media and having no choices. So, it's needed to channel our efforts into improving their music preference and offering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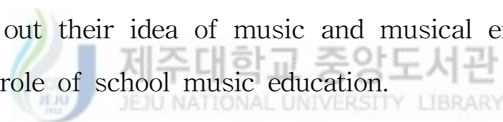
higher-quality education.

School education should be concerned about what type of music is favored by students, and teach them to receive music in a sound manner.

When they are well cared with love, they could be stabilized emotionally and benefit from music, but if they are emotionally needy, it won't work, no matter however superb music they listen to.

Art itself isn't good nor evil. But it has a power to change human behavior, and this is why musical environment must carefully be selected. Teacher should give various musical stimuli and help adolescents discriminate between good and bad in liberal environment through diverse musical experience, instead of determining it on behalf of them. And they should also be assisted to build their own identity.

Therefore, it's attempted in this study to conduct a survey on adolescents in Cheju-do to find out their idea of music and musical environment and deliberate on the value and role of school music education.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음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느낀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 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고 현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0”표 하여 주십시오.

- |                     |               |             |
|---------------------|---------------|-------------|
| * 성별 : ① 남          | ② 여           |             |
| * 학교 : ① 중학교 ( ) 학년 | ② 고등학교 ( ) 학년 |             |
| * 지역 : ① 제주도        | ② 서귀포시        | ③ 그 외 지역( ) |

1. 학생은 하루 평균 몇 시간정도 음악을 듣나요?

- ① 1시간 미만    ② 1 - 2시간 미만    ③ 2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2. 학생은 어떤 기기를 통해 음악을 듣나요?

- ① 라디오    ② 휴대용카세트    ③ CD    ④ TV    ⑤ 인터넷    ⑥ 기타( )

3. 학생은 음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나요 ?

- ① TV나 라디오    ② 음악시간    ③ 신문이나 잡지    ④ 친구  
⑤ 인터넷    ⑥ 기타 ( )

4. 학생은 주로 어떤 형태로 음악을 듣나요?

- ① 공부하면서 듣는다    ② 실내에서 집중해서 듣는다    ③ 차안에서 듣는다  
④ 음식물을 먹으면서 듣는다    ⑤ 음악회에 가서 듣는다  
⑥ 기타 ( )

5. 학생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한 가지만 고른다면 ?

- ① 내성적      ② 차분함      ③ 소극적      ④ 적극적      ⑤ 활동적

6. 학생이 가장 음악을 듣고 싶을 때는 ?

- ① 기분이 좋을 때      ② 슬플 때      ③ 고민이 많을 때  
④ 독서나 공부할 때      ⑤ 운동할 때      ⑥ 기타( )

7. 내가 꼭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

- ① 같이 듣는다      ② 공부하라고 꾸중하신다      ③ 무관심하신다  
④ 같이 듣고 그 음악에 대해 대화하신다      ⑤ 기타 ( )

8. 음악듣기를 주로 같이 하는 사람은 ?

- ① 부모      ② 형제-자매      ③ 친구      ④ 이성      ⑤ 혼자서

9. 학생의 음악에 대한 흥미는 ?

-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보통이다      ④ 없는 편이다      ⑤ 전혀 없다

10. 학생이 생각하기에 가장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는 음악의 분야는 ?

- ① 노래(가창)      ② 악기 연주 (기악)      ③ 가락짓기 (작곡)  
④ 듣기(감상)      ⑤ 기타 ( )

11. 학생은 일주일에 고전음악을 얼마나 듣나요 ?

- ① 1-3곡      ② 4-6곡 이상      ③ 학교에서나 TV를 통해 듣는게 전부다  
④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듣게된다      ⑤ 전혀 듣지 않는다

12. 1년에 음악회에 가는 횟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 ① 가지 않는다      ② 1 -2회      ③ 3-4회      ④ 5-6회      ⑤ 7회이상

13. 학생이 음악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이유는 ?

- ① 흥미가 없어서      ②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③ 언제 하는지 몰라서      ④ 내가 관심있는 음악회가 없어서  
⑤ 경제적인 이유로      ⑥ 기타( )

14. 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은?

- ① 대중가요(한국)          ② 팝송 (외국가요)                  ③ 고전음악(클래식)  
 ④ 민요                          ⑤ 구분 없이 듣는다                  ⑥ 기타 (                          )

15. 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

- ① 가사가 좋아서          ② 음이 좋아서          ③ 주위에서 많이 접할 수 있어서  
 ④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⑤ 기타 (                          )

16. 학생이 자주 듣고 접하는 음악은 학생이 좋아하는 음악입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④ 기타(                          )

17.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는 ?

- ① 부모님의 영향          ② 학교수업, 음악선생님의 영향          ③ TV나 방송 매체  
 ④ 본인의 노력에 의해          ⑤친구의 영향          ⑥기타 (                          )

18.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이 생각하는 음악듣기에 대한 수준은?

-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은편이다          ⑤ 매우 낮다

19. 음악듣기는 왜 필요한가?

- ① 감정이 풍부해진다          ② 교양을 쌓기 위해          ③ 생각이나 행동이 안정된다  
 ④ 음악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          ⑤ 학습효과의 증대를 위해  
 ⑥ 기타(                          )

20. 학생의 음악호감도에 “0”표 하세요.

	매우 좋아한다	대체로 좋아한다	보통이다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대중가요(한국)					
팝송(외국가요)					
고전음악(클래식)					
국악(민요)					

21. 좋아하지 않는 음악이 있다면 왜 좋아하지 않나요?

(                          )